

새벽묵상

---

#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1 1-21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1<sup>1-21</sup>

#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1

2023년 9월 9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김미선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

# 예레미야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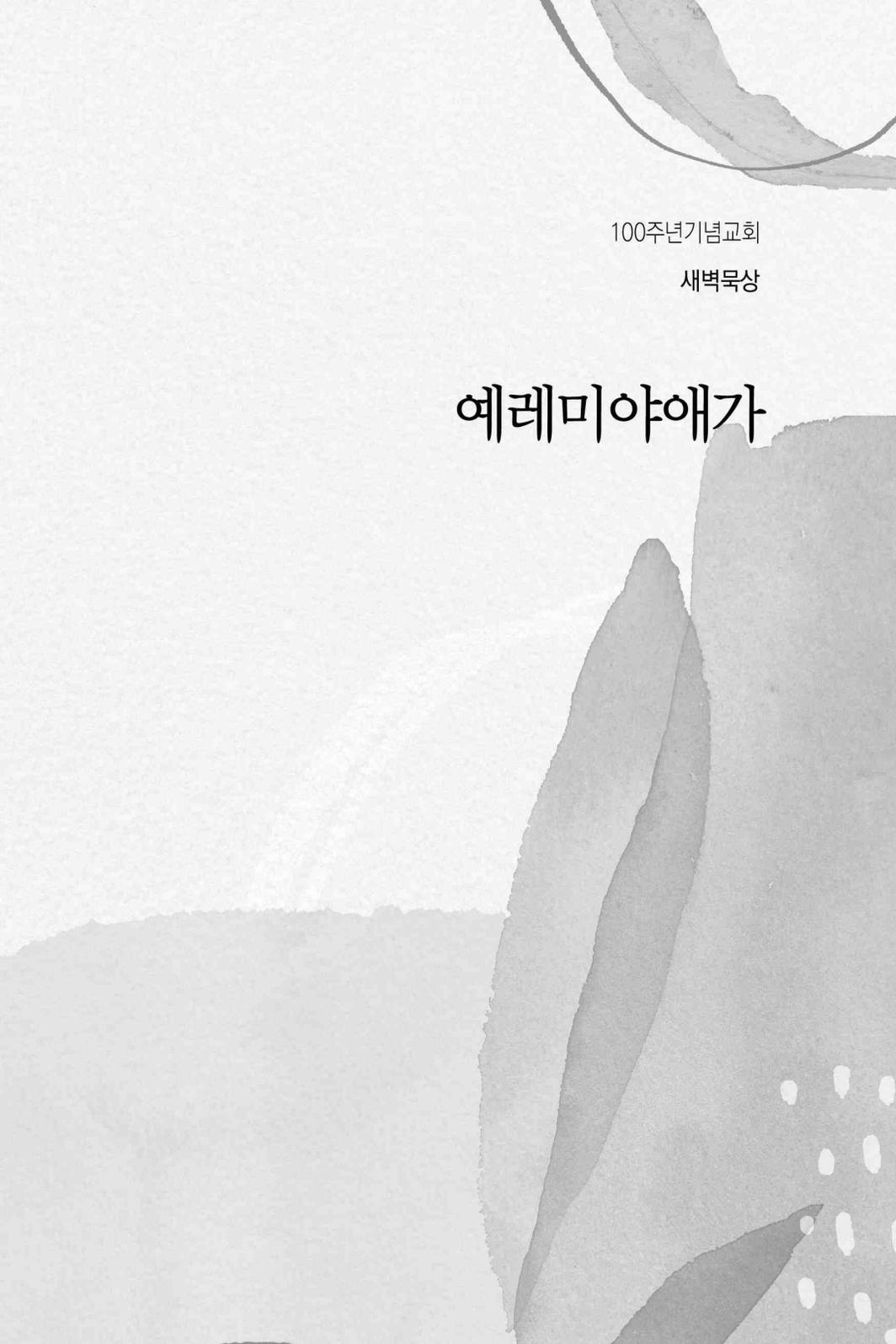
## 에스겔 1<sup>1-21</sup>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예레미야애가

## 차례

예레미야애가 1:1-22

예레미야애가 2:1-22

예레미야애가 3:1-39

예레미야애가 3:40-66

예레미야애가 4:1-22

예레미야애가 5:1-22



1

## 슬프다(에카)

예레미야애가 1:1-22

1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 밤  
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  
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 유다는 환난  
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  
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  
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5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  
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6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  
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7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어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  
 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0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  
 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  
 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  
 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  
 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12 지나가는 모든 사람  
 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불  
 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  
 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어 종일토록 나를 괴곤하게 하여 황폐  
 하게 하셨도다 14 내 최악의 명예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  
 리사 내 힘을 괴곤하게 하셨음이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  
 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15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어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16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  
 이 물 같이 흘러내림이어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iero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 시온이 두  
 손을 뻗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  
 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  
 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  
 통을 불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  
 서 기절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 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 개관

B.C. 586년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다섯 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哀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기에, 당시를 돌아보며 생생한 묘사로 절망적인 애가(哀歌)를 지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재난 앞에서 주

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예레미야애가는 깊은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며(3:22-24),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5:21-22).

예레미야애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가’라는 시 문학적 장르에 다섯 개의 균형 잡힌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66절로 구성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이 모두 22절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22절은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이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도 세 절씩 같은 히브리어 자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의 시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22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가 이같이 균형 잡힌 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기억과 암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다섯 개의 축제가 있고, 그 축제일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식 절기에 읽히던 다섯 개의 책을 ‘두루마리(五軸)’를 의미하는 ‘메길로트(Megillot)’라고 합니다.

- (1) 유월절 : 아가서      (2) 칠칠절 : 룻기      (3) 초막절 : 전도서
- (4) 부림절 : 에스더서      (5) 예루살렘 멸망일 : 예레미야애가

유대교 예배에서는 아브월(7, 8월) 9일에 주전 586년 성전

파괴 사건과 주후 70년 로마제국에 제2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애가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예레미야애가를 읽는 이유는 과거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과 2장은 백성의 불행과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절망을 외치지만, 3장에서 예언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희망을 바라보며, 4장에서는 선지자의 미래 예언을, 그리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 멸망 후 예루살렘의 모습(1-9a)

#### (1a)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로 해석된 감탄사 ‘에카(ekha)’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를 원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깊이 탄식하며 ‘아! 어찌할꼬’입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처절한 상황 앞에서 그는 가슴 속 깊숙이에서 복받쳐 오르는 비탄 속에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b)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장소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사막처럼 적막한 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기의 문명을 주도하던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그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디작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과 자식도 잃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처량한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으며 곱게 자란 일국의 공주와 같이 귀한 신분이었지만, 이제 남의 집에 팔려 간 시녀와 같이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하면서 유다 왕과 그 가족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을 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3차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야간도주 하다가 잡혀 두 눈이 뽑혀 죽는 날까지 옥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과부 또는 시녀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조소 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지려야 낮아질 수 없는 나라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5절에 의하면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악이 즉 대적들이 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를 예레미야는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5b),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다’(8a)고 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두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그들을 흥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과연 공평합니까? 아무도 공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이 시대 역시 악이 선을 억누르고, 악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 사회와 국가가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의 불공평을 외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죄인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법과 교계법을 무시하고 자신과 교회는 치외법권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목사나 교회들이 몰락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한 대형교회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계, 재계, 교계의 유력인사들은 물론 해외의 석학까지도 동원해서 호화로운 헌당식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당대 최고 규모였던 헤롯 성전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호화로움을 자랑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현재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내 죄와 이 시대의 죄악을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 새번역)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예레미야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처참한 모습에 그는 기가 막혀 밤새도록 통곡했고, 낮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2:1, 4:1에서 계속 ‘에카’만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 하나님을 향한 간구(9b-11)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예레미야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거룩한 성전을 약탈한 사건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유다를 위해 간구합니다.

(9b, 새번역) 주님, 원수들이 우쭐합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피 주십시오.

(11, 새번역)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 먹을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피  
주십시오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성안에서는 기근이 극심하여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었습니다(애 2:20; 4:10, 사 9:20, 겔 5:10). 그는  
아직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  
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내 입  
을 위해, 내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  
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기도를 먼저 하지 않  
습니다. 오늘은 우선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  
도는 가장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타적  
일 때 우리의 신앙이 이타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이타  
적으로 했다면,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회봉사주일’에  
성도님들이 잘 입지 않는 깨끗한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  
품을 교회로 가져옵니다. 교회에서 마포구를 넘어선 우리 이웃  
과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 매 분기별로 ‘사회봉사주일’을 실시하  
고 있는 이유 역시 기도에 멈춘 신앙인이 아니라, 성도님들 모  
두가 기도를 행동으로 옮김으로 생명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 세상을 향한 외침(12-19)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즉 주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이같이 비천하게 전락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14)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 즉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고, 그 결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청년과 처녀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피폐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물론 주변 국가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너희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셨다. 만약 너희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18a)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公議)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의한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난 사람만이 불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 간구(20-22)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기뻐하는 주변 국가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처럼 멸망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1-22). 대신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0, 새번역) 주님, 나의 절망을 살피 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픔입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애간장이 다 녹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앞날이 보장되어 있던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서 도망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한 그는 매국노,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투옥되었습니다.

그가 젊어져야 했던 십자가는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그는 소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해버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에카’, ‘슬프다’를 외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대치 국면에 있는 여야가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에 여야가 함께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남 탓만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현재와 세상에만 집중한다면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거짓이 난무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

과 거짓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에카’를 외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주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소명을 주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맡겨주신 소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조국은 '에카'를 탄식한 예레미야를 과거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2.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에카'라고 탄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생명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2

##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애가 2:1-22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어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어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 원수 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이어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 주께서 원수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어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8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9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

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목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10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들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젓 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2 그들이 성을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목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15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나 하며 16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8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듣지어다 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21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  
 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  
 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2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  
 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  
 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놀람(1-10)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애가는 시인데, 정형시인 ‘알파벳 시’입  
 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오늘 본문도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절은 하  
 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1장, 2장, 4장이 모두 ‘슬프다’로 시  
 작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제목  
 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슬프다(에카)’가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예루살렘)을 덮으셨다고 탄식합니다. ‘진노하다’는 ‘코에서 불과 연기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시는 것을 ‘진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진노의 구름이 시온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온은 그 무엇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온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래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의 상징인데, 이제는 진노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온(예루살렘)이 얼마나 초토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 주께서 아굽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채들을 허물어 땅에 얽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거처들을 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는 ‘주거지’가 아니라 ‘초장’, ‘목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주요 산업인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채들을 허물어뜨려 땅에 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고대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담벼락과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라와 지도자들은 욕되게 하셨

다'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이제는 더 이상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곳이 되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4)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 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이여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뿔을 잘랐다고 합니다. '뿔'은 문자적으로는 양이나 염소, 황소 등의 뿔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힘', '권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그런 힘을 부여받은 사람, 특히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는 '오른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권능', '능력', '구원'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심판의 권능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6)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헐어 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초막은 ‘회막\_만남의 장막(Tent of Meeting)’으로도 불렸습니다. 초막(회막)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만남의 장소’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을 헐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막’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된 장소’라면, 절기와 안식일은 ‘약속된 시간’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이방 민족과 구별하게 해주는 가장 또렷한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잊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왕과 제사장’은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말씀을 받으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억매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10)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성곽과 성벽이 무너졌고 이제는 성문도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다’라는 것은 성문이 불에 전소(全燒)되어 재가 되어 땅에 묻혔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드나드는 통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공포하는 장소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 송사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법정역할이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성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옥사했고,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함께 끌려갔습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묵시(말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나라와 왕에게 자문역할을 했던 장로(원로)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어야 할 처녀들이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암울한 상황을 말합니다. 유다의 적령기의 청년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보(11-22)

11-22절은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절한 호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12)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부아(히파=폐)가 치밀어 오르다’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등 우리말에서도 신체의 장기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언어에서 신체의 장기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참담한 심경을 장기를 예로 들어 삼중으로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첫째는 ‘내 눈이 상하며’라고 합니다. 18절에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증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물에 담가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흐려지고 생선이나 고기가 부패할 것입니다.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많이 운 것이 마치 눈동자를 물에 담가놓은 것과 같아서 눈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창자가 끊어지며’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단장(斷腸)’입니다. 중국 동진의 환공이 촉나라를 정벌하러 가다가 양자강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 배에 싣고 갔는데,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며 100여리(약 40km)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배가 정박했을 때 배로 뛰어오른 원숭이는 그대로 숨졌는데, 환공이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고사에서 전해진 말입니다. 옛 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도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는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간’은 ‘격한 감정’에 대한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쏟아졌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 잃은 슬픔은 이러한 표현(눈이 상함, 창자가 끊어짐, 간이 쏟아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곡식과 포도주 (먹을 것)가 없느냐’며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아 왕 통치 9년인 B.C. 588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에 1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다면, 참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2,500년 전이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주변의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5-16)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나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고대에 각 도시는 자체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즉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지거나 재난을 당한 도시나 국가를 공개적으로 비웃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니, ‘지나가는 사람들’, ‘원수들’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런 과정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과 비꼬는 듯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고통과 이방인들의 조롱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20-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상을 겪고 있는 유다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 부분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를 잡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셔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처절하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21-22)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길거리에서 살육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절기(명절)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살육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애가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심겨져 열매를 맺지 못해 짝힘을 당할 처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위해 증보하는 포도원지기와 같습니다.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의 주인에게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를 요청하면서, 무제한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만 더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해, 한 해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해, 한 해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날과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한 해(금년)가 마지막이 될 때 어떤 참상을 겪게 되는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외면할 만큼 세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게 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 접붙여진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열매가 한 알 한 알 영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초막(회막)도 헐어 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도 멸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눈이 눈물에 상하는 것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까?
3.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원시기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중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을 기다려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레미야애가 3:1-39

1 여호와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2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6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몰리치시며 9 다름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10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11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12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심이어 13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5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축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어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22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

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 시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이 좋도다 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명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 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덮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 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 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 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 을 발로 밟는 것과 35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 이 아니로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 살 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 여호와의 징벌(1-18)

예레미야애가 3장은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세 절 첫머리에 서 반복되어,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형식 이라고 해도 그 형식이 세 배에 이른다는 것만 보아도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이고,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3장에 있 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2장이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는 데 모든 지면을 할애했다면, 3장 중반부를 지나며 작금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고,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소개됩니다.

1절의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를 직역하면, ‘나는 고난 당한 남자다’입니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통해 여성 시인 화자와 의인화된 시온의 음성을 들었으나 3장은 고난 당한 남자의 1인칭 연설로 시작되며, 39절까지 계속됩니다. ‘고난 당한 남자’는 시온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화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상흔은 남녀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3장에서 남자를 화자로 등장시켜 하나님 백성의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애가 속에 모두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게베르’는 전형적인 남성이고, ‘힘센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센 남자가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의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의 때’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잠언에서, 자식이 생명으로 가는 곧은 길을 견게 하는 도구로 표현됩니다(잠 10:13; 22:8; 23:13, 14; 29:15).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때를 사용하여, 남자로 표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2절에 표현된 대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데(3절)’ 사용하십니다. 이 별은 단회적인 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보이는 별입니다.

4-6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 소개됩니다. 4절에서 겔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면의 뼈들을 꺾으심으로써 그 고난이 전 존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을 드러내고,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듯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심으로, 6절 표현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었고(7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보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8절). 하나님의 백성은 힘써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차단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었던 낯선 풍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길들을 굽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네티브’로, 잠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에서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이 굽은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된 장애물들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곰과 사자에 비유하여

(10절) 자신이 견고자 하는 길을 치우치게 만들고 몸을 찢는 존재에 비유하고(11절), 자신을 과녁 삼아 화살을 쏘는 존재에 비유합니다(12절).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는데, 맞은 곳이 허리입니다(13절).

### (13)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킬야’는 엄밀하게 번역하면 ‘신장(콩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장을 사람의 기쁨과 슬픔의 좌소이고, 특별히 그곳에 영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NIV성경은 ‘킬야’를 마음(heart)으로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영혼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화살로 찌르셨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상 13절까지 살펴본 내용의 주된 이미지는 목자와 양에 대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목초지와 물가로 인도하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팡이로 양을치고,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양을 몰아가시며, 친히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되셔서 양을 괴롭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반전 상황이자 문제적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17-18)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시인은 이런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닫  
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평강이고, 참된 복임을 이제서야 깨닫습  
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오래 참으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  
목에서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하시는지를 몰랐는데,  
고통을 직면하고 직면하다 보니,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  
고, 복을 내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현 상황에 대  
해 해석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뼈아프지만 현 상황에 대한 바  
른 진단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밑거름이 됩니다.

살면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비탄에 빠져 실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생의 의지를 잃어  
버리고 올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  
불리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일상을 살아  
가려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고통에 직면하여 아파해  
야 할 것들을 아파하고, 되돌아볼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

돌아보아야 오늘 3장에서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은,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가 하신 말씀은 언젠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어서 그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선한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의 의증을 밝히 헤아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소망을 갖고 심판을 묵상하다(19-39)

이제 시인은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19절) 속에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20절),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22-24절에 잘 나타납니다.

(22-2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리리라 하도다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은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늘 새롭습니다. 성실하십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선언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신 땅을 말합니다. 곧 주인으로서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주신 선물이 기업인데, 종들은 이 기업을 일구어 먹고사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는다는 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23절), 심판 이후에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임을 신뢰하는 표현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울 정도로 시인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점과 시야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소망을 둘 하등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비와 긍휼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5-27절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의 ‘토브’로 시작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 제시합니다. 25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26절을 통해 불만을 토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27절을 통해 고통이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겪는 여러 힘든 일들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28절). ‘잠잠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맘’은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대

면했을 때,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낙담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사 6:5).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29절).

(29)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덮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입을 티끌에 댄다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얼굴을 재 속에’ 묻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에 머리를 대는 행위는 재 안에서 짓밟히는 것과 다르며, 회개를 상징하는 자발적인 비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때의 행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자기에게 오는 학대를 수용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날 자신의 죄 때문이며, 지금 겪는 고난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고난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30절),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31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장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참상이 모두 자기 죄들 때문에 받는 벌이라는 것을 알았고, 원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39절).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라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양

심이 소리 지르는데도 죄의 유혹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죽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남성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비참한 현실 같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 생명의 열매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신음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처참한 형편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직면합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가볍디가벼운 삶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겸손히 살아갈 때에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사랑으로 주시는 엄하신 징계의 무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 체험하며,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1)’에서 ‘나’는 정확히 누구인지, 1-2장과 다른 화자를 내세워서 얻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2. 시편 23편과 예레미야애가 3:1-13을 대조해보고, 왜 이렇게 상반된 관계를 맺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13)’라는 표현에서, 왜 ‘허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4. 현재 상황 때문에 낙심에 처해있는 시적 화자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22-24)? 나는 화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우리의 마음과 손을

예레미야애가 3:40-66

40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5 우리를 못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어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51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52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53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어 54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7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

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60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대 61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대 63 그들이 앓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5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6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슬퍼서 부른 시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상황에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살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살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어두운 구렁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살길은 굴욕적인 항복을 담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였습니다. 멸망으로 인해 남유다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고 말하며 1인칭 단수 ‘나’를 사용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가 3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의인화하여 매를 맞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 행위들을 조사하고(40-47)

(40)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0절은 39절을 근거로 한 청유형입니다.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기에 범죄 행위를 조사한 후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40절부터 47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어로 1인칭 단수 ‘나’에서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생각한다면,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2인칭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애가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1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리라는 것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말한 것은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애절함과 사랑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애가 3장에 사용된 1인칭 복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지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41)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자는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42-47)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 분석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공흠을 베풀지 않으신다(43절). 둘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44절).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45절).

하나님께서 공흠을 베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와 반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기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기에 이스라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못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 흐르는 눈물(48-51)

(48-49)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그치지 아니한데, 눈물을 그칠 때가 언제인지를 5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그칠 때는 하나님께서 가리신 진노와 구름을 걷히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51절은 선지자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처참해진 성읍의 여인들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니 역장이 무너졌습니다.

#### 나의 원수들이(52-66)

52절부터 사용되는 1인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인화한 1인칭이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 대한 1인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동족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탄원시처럼 일종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이 3장의 뒷부분에 있지만, 탄원의 내용에 관련된 인생 경험은 40-51절의 경험보다 더 앞섭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이 3장의 결론부가 아닙니다. 3장의 중심 주제는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19-39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51절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호소하면서도 52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보응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52)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원수로 대하며 동물을 사냥하듯 공격했습니다. 구덩이에 넣고 돌을 던졌습니다(53절). 마치 물고문이 연상되듯 물이 선지자의 머리 위로 넘쳤습니다(54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구덩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55절).

(56)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7) 내가 주께 아뢰던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심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기도 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응답이 더딜 뿐임을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주시길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58-59)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과거 나의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하나님께 이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보복하며, 모해하며, 비방하며, 나를 치고, 말로 비난하고, 얕으나 서나 조롱하고, 노래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대응해본들 무슨 유익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64-66)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길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실 때 이 세상에서 다양한 악순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심히 깊은 구렁이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부르짖음이 진노의 구름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모해를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심히 어두운 구렁이에 빠져있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받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쓰레기와 폐물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뽑히지 않도록 막아 주는 포도원지기처럼, 그리고 포도원지기의 요청에 따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주인처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 나라의 어려움과 이웃의 곤경과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의 열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예레미야 선지자가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1인칭 단수 또는 2인칭 보다 1인칭 복수를 적절히 사용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3.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또는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4.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탈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예레미야애가 4:1-22

1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2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 들개들  
도 젓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  
의 타조 같도다 4 찢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 아이  
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5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  
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  
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7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젓보다 희며 산  
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8 이제는 그들  
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족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  
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9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찢림 받은 자들  
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10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  
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11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며 시온에 불을 지르  
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13 그의 선

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14 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 같이 방황함이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15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흠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 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8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21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 하나님 백성의 패망의 참상(1-10)

B.C. 586년,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고서, ‘망국지탄(亡國之歎)\_나라 잃음을 탄식’을 노래하는 연작시가 예레미야애가입니다. 1-10절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의 백성들이 겪은 참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장과 2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슬프다(에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시온(예루살렘)을 보며 ‘슬프다(에카)’라고 탄식합니다. 앞에서 탄식했던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소리는 점점 더 깊게 와닿습니다.

(1-2)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순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희귀성과 함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한 순금과 같은 시온의 아들들(예루살렘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항아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구웠는데 모양이 찌그러지고 금이 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깨버린 항아리를 뜻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탄식했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 금이 빛을 잃은 것,

순금이 변질된 것,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 국보1호 승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택지보상액에 불만은 품은 사람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방화였습니다. 당시 불붙은 승례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 2019년 4월 15일에는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파리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 대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화재들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무너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당시에 들개는 무리를 지어 다니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멸시받는 동물의 대명사라도 같았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의 타조는 알을 낳은 후 품어 부화시키지 않고, 모래 속에 파묻어 두어 지열(地熱)로 부화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들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유다 백성들을 들개보다 못한 타조와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돌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5) 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어떤 상태가 되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지 알 수 없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부모는 굶어 죽어도 젓먹이에게는 먹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젓먹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먹이는 법인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좋은 옷을 입고 품위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7-8)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젓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과거에 유다의 지도층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피부도 좋고 옷도 잘 입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도 더 검고, 피골이 상접

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도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 것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입던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가난했던 사람들은 전부 굶어 죽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옴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찢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칼을 맞고 죽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칼을 맞고 죽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굶어 죽는 것은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년씩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갇힌 사람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처참한 상황을 차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가 이 정도라면, 그렇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나님 백성의 패망 이유(11-22)

11-2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참상,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 일어서고 무너짐의 출발도 부모이고, 마지막도 부모입니다. 건설했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자녀로 인함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부모가 엉뚱한 삶을 살거나, 과도하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과 경제력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은 그 전에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무너졌던 가정이 일어서게 되는 것도 부모의 바른 삶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자녀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가 믿음과 삶에서 올바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신앙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가장 경건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는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14-15) 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 같이 방황함이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앞을 볼 수 있는 정안인(淨眼人)으로 살다가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면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캄캄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의복은 순식간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람들로 부터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면, 당신은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 말을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힙니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라는 것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아야 할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당시 중동에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신흥 강국이어도, 전통 강국인 애굽을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바라보면,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듯이 유다는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바라본 유다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9)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바벨론이 빠르게 쳐들어오는 것을 ‘하늘의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모든 동물계에서 눈이 가장 좋습니다. 지상 2,000m 상공에서 들판에 기어 다니는 들쥐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수직 강하할 때는 그 속력이 무려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좋은 눈으로, 또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쳐들어오면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사자처럼, 숨었다가 잡으려고 한다면 도망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1-22)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에게는 심판을, 유다에게는 형벌 종료선언을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돔은 혈연적으로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에돔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를 잘 도와 주기는커녕 약탈자와 한통속이 되었고,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박장대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가 젊어져야 할 짐을 에돔에게 지우시고, 유다에게는 끝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포도원지기가 한 해, 한 해만 참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달 매달, 매년 매년 기다려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께 접붙인 바 되어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애가가 가슴 깊이 아리게 다가옵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청과도 같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를 유다 백성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았고, 아름다운 질그릇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으며,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굶어 죽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도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애굽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 있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2.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앞선 사람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당신의 가정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형벌이 끝났다고 하시며,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애가 5:1-22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3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5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 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10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1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12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3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14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7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괴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본문 5장은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장으로 앞선 장들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다면, 5장은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이 22절로 이루어진 구성을 깨지는 않았으며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그림을 그리듯 펼쳐지며 그 처음과 끝에 위치한 간구의 기도와 어우러져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그조차 주는 자가 없는 극심한 궁핍 속에서 탄식하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며 돌이키는 탕자의 모습이 예레미야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며 예레미야애가 속에 담겨진 탕자의 노래를 함께 살

펴보시겠습니다.

###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간구함(1)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이 불어 물을 마르게 하시며 사용되었던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또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실 때 사용된 ‘생각하사’라는 뜻의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우리의 고통, 상실, 심판을 기억하셔서 긍휼 가운데 건져주시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드렸던 이 애가의 노래를 전쟁의 폐허 가운데 많은 유대인은 읽고 부르면서 5장의 ‘자카르’의 기도를 드리

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자카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로서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며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상실의 현장(2-18)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전쟁의 패배 후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5)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먼저 그들은 재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과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을 빼앗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경제적 약자로 여기는 고아와 과부들같이 생활고의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마시던 물과 나무를 위하여 은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 풍요로움은 타인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자신들의 것을 갖기 위해서 도리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동하는 처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6-7절은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6-7)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현재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ی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의지한 결과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당하여 없어졌고 그 자손들까지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담당하고 있다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 되다, 짐을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의 방탕한 삶의 결과가 궁핍과 빛이 되어 자녀에게 이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조상들의 죄값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행한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의 결과는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큰가 작은가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살아 있는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8-10)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자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기서 언급된 종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현실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곳에 양식이 떨어져 광야를 지나 양식을 얻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광야에는 그들의 양식과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위협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기아는 백성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실조의 상태가 되게 만들었고 그들의 피부는 굶주림의 열기로 인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상실한 유대인

들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려 하나 주는 자가 없던 탕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1-16)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었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어서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상실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녀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고 처녀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상실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민족은 가족이 성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민족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12절은 지도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적들의 손에 의해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의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숨겨진 자같이 되었습니다. 13절부터는 소중한 일상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빼앗긴 짐승을 대신해 삼손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으며 뛰어놀아

야 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던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청년들은 노래하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고 즐거움의 춤이 변해 슬픔의 애가가 되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왕권이 무너진 것과 그들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은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종살이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17-18) 이렇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렇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이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실감을 경험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마치 큰 재난을 당한 뒤에 국민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국가적 우울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눈들은 어두워졌으며 시온산은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우는 파괴, 황폐를 의미합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서로의 소유를 구분하고 작은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작은 담을 만들었는데 설

치류를 잡아먹으려는 여우들은 이리저리 부딪치며 담을 허물었고 허물어진 담 사이로 들어가 사냥을 하면서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뛰어논다는 것은 망가진 포도원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이 황폐하여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적들이 여우처럼 자신들의 땅에서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무엇도 먹고 싶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우가 뛰노는 황무지처럼 황폐하여지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상태를 민족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가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민족적 아픔 속에 단순히 애가만 부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겐 희망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 희망을 노래하며 간구하는 예레미야(19-22)

(19-20)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참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레

미야는 급선회하는 비행기 조종사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황폐한 땅에서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 무너진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보좌만이 자신들이 소망을 걸 유일한 곳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4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 11:3-4)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고 애가를 부르며 마포대교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자카르’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는 20절에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버려두지 말아 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한 주먹 쥐엄 열매조차 없던 탕자가 떠올린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아버지의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탕자가 자

신의 망가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보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21-22)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간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고백은 철저히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라고 겸손히 간청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 주시면 돌아갈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탕자는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었기에 그저 종 중 한 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자녀 된 자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였을 때 그

가 예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의 내용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 쉬운 성경)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실은 호세아 1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호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성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읍들처럼 사라지게 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결코 그 자녀 된 백성들을 놓으실 수 없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오래도록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나저제나 이스라엘 백성

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뽑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심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카’, ‘슬프다’로 시작한 예레미야의 애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희망의 노래, 곧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간구하며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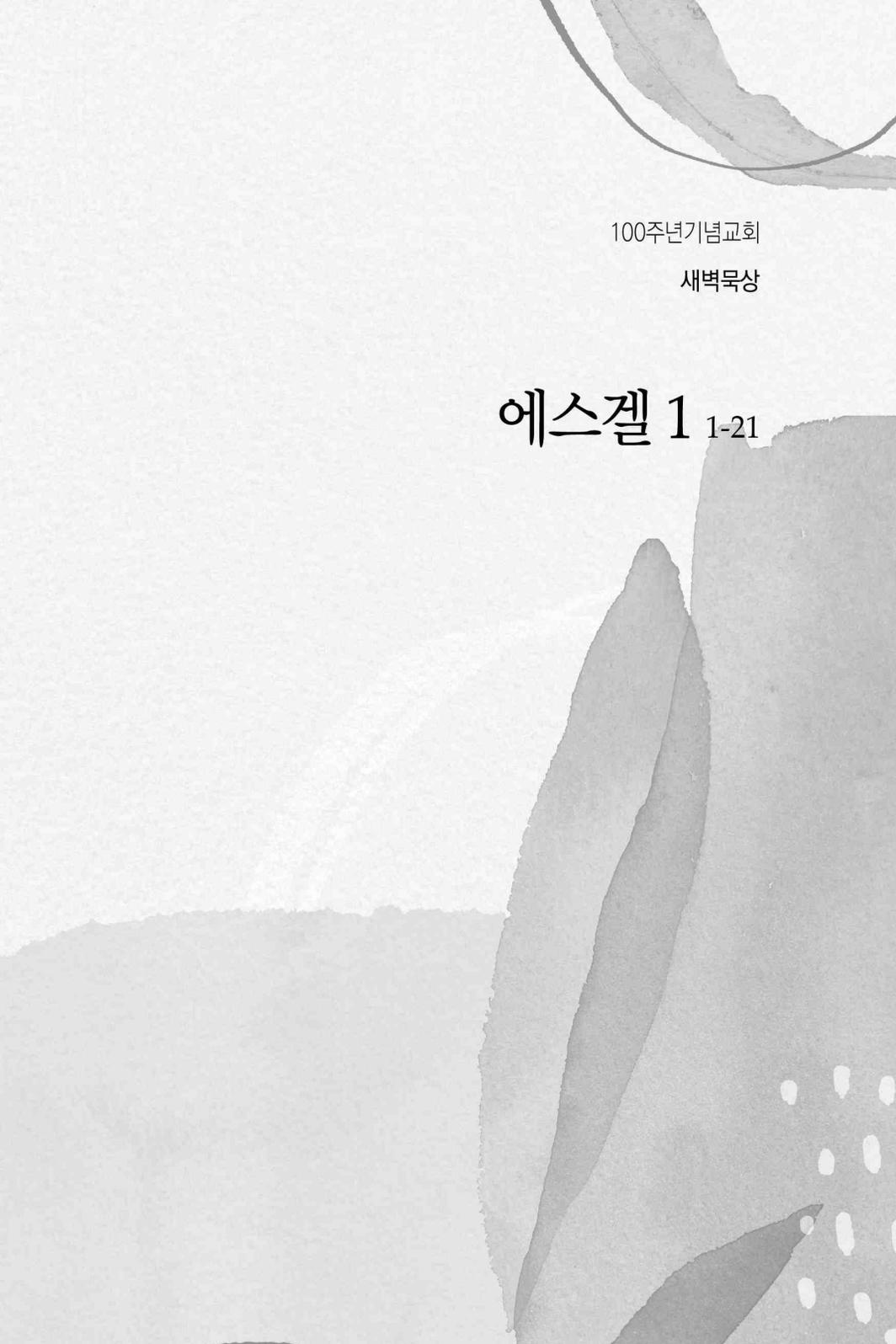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과 같고 ‘에카’, ‘슬프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그 앞에 ‘자카르’, ‘기억하소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머물던 탕자를 측은히 여기며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던 아버지 같은 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난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주어진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백성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전했지만 듣는 자 없어 슬퍼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을 당한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포도원지기가 되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위에 고통당한 자들과 길 잃은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간구하는 선한 포도원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나의 삶은 후손들에게 짐이 될 만한 삶의 결과를 남길지, 선물이 될 만한 삶의 결과를 남길지 돌아보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2.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탕자와 이스라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3.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며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묵상해 보며 나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의 정황들을 기도로 아뢰며 맡기는 기도를 드러봅시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뜻을 먼저 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겸손한 신뢰가 있는지 돌아보며 묵상해 봅시다.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에스겔 1 1-21

## 차례

에스겔 1:1-28

에스겔 2:1-10

에스겔 3:1-27

에스겔 4:1-17

에스겔 5:1-17

에스겔 6:1-14

에스겔 7:1-27

에스겔 8:1-18

에스겔 9:1-11

에스겔 10:1-22

에스겔 11:1-25

에스겔 12:1-28

에스겔 13:1-23

에스겔 14:1-23

에스겔 15:1-8

에스겔 16:1-34

에스겔 16:35-63

에스겔 17:1-24

에스겔 18:1-32

에스겔 19:1-14

에스겔 20:1-32

에스겔 20:33-49

에스겔 21:1-32

## 보좌 위 사람 같은 이

에스겔 1:1-28

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밭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3 갈대아 땅 그밭 강 가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6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년 구리 같이 빛나며 8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돌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위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 그 바위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위 안에 바위가 있는 것 같으며 17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21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퍼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주전 6세기의 선지자 이름이자, 그를 통한 말씀 선포를 기록한 책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타협하지 않는 심판의 메시지와 이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에게 적절한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 온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위에 드러내는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언약 안에 두신 이스라엘은 수 세기에 걸쳐 불순종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신명기 29-31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열국을 사용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궤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은 아니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심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삼중구조로서 1-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한 파멸, 25-32장은 열방에 임하게 될 심판, 33-48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알려줍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보좌하는 네 생물과 네 바퀴에 대한 환상입니다.

### 에스겔의 소명(1-3)

(1-3)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밭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밭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주전 597년 겨우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킨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예루살렘 사회의 상류 계층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의 서른째 해가 어떤 연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 견해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서는 회막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민 4:3), 에스겔이 첫 환상을 봤을 때 서른 살이었다면,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인 바벨론 유수가 있는 지 25년째,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두 번째 성전 환상을 소개하며 그의 사역은 마칩니다(겔 40:1).

포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일한 나이가 되었을 시기와 일치합니다. 성전 제사장으로 공직을 시작하는 대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흥미로운 조합을 접하게 됩니다. 그밭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마치 서른 살에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시고 사역 내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시를 받은 연대를 이중으로 밝히고 장소를 설명하는 것은, 계시받은 사건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언제나 성령의 힘을 받아 사역했음을 볼 때,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네 생물과 네 바퀴 환상(4-21)

(4-5)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을 동반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와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사 6장),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신 18장). 그러나 에스겔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의 현현이 정적이지 않고 포로들의 땅에서 움직임이 가득 찬 ‘폭풍’ 가운데 계신 여호와로 시작한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만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수종하는 임무를 가진 폭풍과 구름 속에 있는 네 생물과 네 바퀴의 환상이 드러납니다.

(10-11)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돌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에 생물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묘사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중에 네 생물의 정체가 그룹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겔 10:15). 그래서 이 생물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네 생물에 대하여 신약의 네 복음서를 나타낸다고 보는 해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종 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관련지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날

개로 몸을 가렸다는 말씀은 이들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한 그룹도 여섯 날개 가운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또한 이 생물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히 10:38).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늦장을 부리지 않으며 신속한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하며,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19-21)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바퀴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데,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단 7:9b)라고 합니다. 바퀴는 보좌가 이동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삼하 7: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성전과 다르게 회막은 간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 앞에서 행진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행차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든 피조물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사건 위에서 천사들을 통해 주관하고 움직이십니다. 어디든지 영이 가려 하는 곳에 생물도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려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된 우리는 생물처럼, 바퀴처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보좌 위의 사람 같은 이(22-28)

(22-23)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퍼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에스겔은 이제 땅을 벗어나 하늘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환상으로 봅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궁창은 하늘의 지붕을 형성하는 반면 여기서는 생물들의 날개로 지탱되며 그 너머로 환상의 절정이 나타나는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앞으로 곧게 행하며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고 돌이키지 않던 그룹들이 궁창 밑에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물

들이 자신들의 날개를 내려 몸을 가리게 했겠습니까?

(26-28)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중심은 “보좌 위의 사람 같은 이”에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비어 있지 않고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에스겔은 궁창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올려다보았으며, 그 때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계 1:12-13).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 그의 발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왕으로서 보좌 위에 나타나셨지만, 인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단 쇠 같은 모습, 즉 그 속과 주위가 불같으며 사방의 광채가 나는 모습은 마치 빛을 옷으로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를 볼 때 금세 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면,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28절에서 이는 여

호와이셨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고, 이 영광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내시기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낮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에스겔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영광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악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밀하심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영광 가운데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문제를 통과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셔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약자를 도우며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속히 순종하며 약자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의 이름 뜻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까?
2. 네 생물과 바퀴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3. 보좌 위의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을 볼 때 에스겔은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에스겔 2:1-10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2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 이 자손은 얼굴이 뺨뺨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 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 에스겔 속으로

먼저 48장으로 된 에스겔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3번의 대규모 공격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B.C. 597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중동의 패권자임을 재천명하기 위해서 유다를 다시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B.C. 586년입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들을 포함한 왕족, 귀족, 백성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옥사(獄死)했습니다. 에스겔의 핵심구절은 36:26-28입니다.

(36:26-28)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가 무너지게 된 것은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거나, 경제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

르게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에스겔은 다니엘과 더불어 ‘계시문학’에 속하는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처럼 에스겔에도 상징적이고도 환상적인 장면이 많아서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해한 장면에 불필요하게 집착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 이단의 공통점은 이 세 책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쉽게 이해된 내용이, 2500년의 시간적인 간격과 중동과 대한민국이라는 거리적인 간격, 그 외에도 문화적인 간격, 경험적인 간격 등으로 인해서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2) ‘나’, ‘내’ 등의 1인칭의 시점으로 기록되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_사람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예언적 일기장’ 또는 ‘자서전적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인자’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3)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5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의지가 없으심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지막 장절이 48:35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48: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여호와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_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서의 핵심어와도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용기입니다.

## 소명자 에스겔(1-5)

오늘 본문 1-5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을 때는 제 30년(그의 나이) 4월 5일이고, 그때가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B.C. 593년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1차 포로됨이 B.C. 605년에 있었으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된 때로부터는 5년 만에, 처음 포로가 된 때로부터는 12년 만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셈이 됩니다.

(1-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人子)’라고 부르셨습니다. 2장에서 1절 외에도 3절, 6절, 8절에서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아담)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한, 아담이 흠으로 지어졌으니, ‘흠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의 대명사인 ‘인자’를 예수님께서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한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자’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영’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 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을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참기가 막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우님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거나, 인상을 찌푸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비아냥거리고, 속으로 “너는 떠들어도 난 내 하고 싶은 데로 살거야! 이제 그만 그쳐 줄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들

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두)이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한 삶을 버리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뻔뻔하다’고 하시며,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다’의 의미는 ‘얼굴이 거칠고 단단하다’입니다. 우리말 ‘철면피\_얼굴에 철판을 깔다’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철면피’는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무자비한 사람, 오만방자한 사람, 완고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다’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언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 중심과 삶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패역하다’는 ‘쓰다(마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이 쓰디 쓸 수밖에 없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단지 ‘미래를 미리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사역의 당부와 순종(6-10)

6-10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할지라도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한 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지어다’도 나옵니다.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설교자들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은 굳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바들바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약속입니다.

(8-10)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애가(장송곡이나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른 노래)’와 같고, ‘애곡(예레미야애가와 같은 애가)’과 같고, ‘재앙의 말(심판의 말)’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쓴 것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쓰디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모두 먹어야 선지자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인 28 절의 하반 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8b)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전통은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서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도 엎드려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왜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셨습니까?”라고 한숨 쉬며 원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까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경외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려고 하기보다 이방과 친밀하여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한 날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앞드리는 에스겔로 살아가는 24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엓드림이 에스겔 선지자의 엓드림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와 같지 아니하고,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면 더욱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가 두렵고, 두려우며, 또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위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직면하여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었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에스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의 자리인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은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에도 엎드리지 않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2.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두려운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까?
4.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3

##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3:1-27

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4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5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10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12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

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3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  
 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  
 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와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15 이에 내가 델아빤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밭 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16 칠 일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 인자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  
 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  
 고 19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  
 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  
 하리라 20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  
 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  
 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 그러나 내가 그 의인  
 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  
 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라 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  
 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밭 강 가에서 보던 영  
 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앞드리니 2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밭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

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 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1-3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소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3장은 2장의 내용과 연결되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1-3)

(1-3)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발견한 것을 ‘먹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말씀을 먹지 않고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

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은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보통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을 하면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2: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쪽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꿀처럼 달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두루마리에 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달았던 말씀의 내용이 재앙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은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먹고 전하는 것은 교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꿀처럼 단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먹기 힘든 만큼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15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

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4-15)

(5-6)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  
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를 7절이 증언합니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  
게 동족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머리로도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  
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오  
히려 믿지 않는 백성보다도 못한 모습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도 이마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마와 마음도 이미 굳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무겁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여 두렵지 않게끔 용기를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마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며, 또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심(16-21)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

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모든 백성은 침략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에게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18-19)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은 악인에게 ‘네가 꼭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우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은 심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그 죄악 중에 죽게 되면 그의 피 값의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악인이 깨우치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가정, 일터, 교회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각자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모두가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파수꾼인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22-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입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22-27)

(24-26)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 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외(15절)하였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권능으로 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22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도 하시며(24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가 입천장에 붙도

록 명하셨습니다(26절).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다시 입을 막으십니다. 분명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입을 막으시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에스겔은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시며 막을 내립니다.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할 때 그의 입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친히 말씀을 먹이시고, 용기를 주시고, 대화하시며 주종(主從)관계를 넘어 친밀함으로 에스겔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함을 유지하였기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저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3. 파수꾼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삶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 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 4:1-17

1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3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놓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7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놓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되 10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1 물도 육분의 일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12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뿔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16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17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1-3)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과 흙과 다양한 전쟁 공격용 무기로 예루살렘 성과 그 둘레의 모형 제작,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퍼포먼스, 즉 행위연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1)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에스겔을 가리킨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판이라는 의미인데 원어의 다른 용례에는 흙으로 빚어 만든 벽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토판의 크기는 흔히 사용하는 벽돌보다 두께나 너비가 훨씬 클 것입니다. 흙을 이겨 만든 판에다가 마치 화선지에 그림 그리듯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새겨 그리는 것입니다. 2-3절은 예루살렘 성을 새겨서 만든 토판 주변의 시설물 모형에 관한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 건축물 모형을 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모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모형과 차이가 있다면 건축가가 만들 멋진 작품의 모형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건축물의 파괴를 앞두고 철거 시설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나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사다리와 흙 언덕은 높은 성벽을 넘어가 성안을 공격하기 위한 설치물이고, 공성퇴는 성문을 부서뜨리기 위한 공격용 무기이고, 철판은 성벽 위에서 있을 공격에 대비한 철벽 방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 후반절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모형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곧 다가올 미래에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공격으로 파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 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를 구입하여 토기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미래의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선지자의 퍼포먼스, 즉 행위연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차이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소명을 받았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와 그 이후에도 남유다에 남아 활동을 하였으나,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먼 이국땅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다섯째 해에 소명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본국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본국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범했던 죄에 대하여 참회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육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보다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퍼포먼스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4장 전체는 퍼포먼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 누워 390일, 누워 40일(4-8)

(4-7)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  
로 누워 40일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이유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고, 오른쪽으로 누울  
이유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을 바라보고 누울 때 왼쪽에 북이  
스라엘, 오른쪽에 남유다가 위치합니다. 하루가 1년이라고 하시  
니 각각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참회의 기간이 390년과 4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 의미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더라도 분명한 점  
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죄악을 담당해야 할 기간이 월등히  
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죄악이 더 컸던 것  
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남유다보다 135년이 빨랐다는 것과 관  
계성이 있습니다. 죄악에 비례해서 감당해야 할 기간이 길어졌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도 범죄자의 형량은 죄

질에 따라 비례합니다.

4장에 에스겔 선지자의 연출을 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워있다고 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누워 장시간 있는 것은 휴식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환자가 수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장시간 누워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힘든 일인데 옆으로 누워 390일과 40일을 각각 보낸다는 것은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몸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동이라고 하십니다.

(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는 상자 고문과 벽관 고문 형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든 형틀인데 사람을 좁은 공간의 상자와 벽장 형태의 관에 넣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형틀 안에 갇힌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줄로 동여져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에워싸는 날’은 예루살렘 성이 각종 공격용 설치물로 에워싸이듯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악을 감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형틀에 동여지고 비방자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주님께

서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 형들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새벽기도회마다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동여지고 에워싸였던 형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 인분 물을 피워(9-17)

(9-11)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삼백구십 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이십 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육분의 일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각종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떡은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할 390일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에 20세겔의 떡을 먹어야 하니 한 끼에는 약 7세겔 정도입니다. 20세겔은 약 228g입니다. 요즘 식료품 중에 밥을 만들어 포장해서 판매하는 햇반의 무게가 보통 200g입니다. 햇반 하나를 3번 나눠서 한 끼를 해결해야 하니 형무소에 갇힌 죄인보다 더 좋지 못한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물 1/6헌은 약 600ml인데 오늘날 시판되는 작은 생수병 정도의 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하는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2L이니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2)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형무소에 있으면 아무리 좋지 못한 떡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서 줍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곡물을 직접 빵아야 했고, 빵은 곡물을 물에 이겨 반죽하여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구울 땀감은 나무가 아니라 인분이라고 하니 세상의 범죄자들에게도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흉악범이나 사형수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증오감이나 복수심을 갖고 있는 원수에게나 할 짓입니다. 물론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는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치의 자비도 없는 약탈자나 정복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일을 사명으로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땀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운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법인데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은 최소한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 제공 차원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이용해 학대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다시피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 행위연출을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13)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 시

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아직 남유다의 완전한 패망은 6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3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 땅으로 더 끌려오겠지만, 예루살렘 패망으로 많은 사람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향이 아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본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잘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떡을 먹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 이후 흩어져 살아갈 사람들이 받을 고생을 자신이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14) 내가 말하되 이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명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꿀처럼 달다고 말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단맛을 내는 음식이어서 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권하실 때는 먹지 못할 것, 죽을 것을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요

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쇠뿔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떡을 구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나무 딸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전히 좋은 딸감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난의 잠과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연출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연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기자는 대본에 따라, 그리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때론 목청을 높이고 때론 울고 웃고 때론 상대 배우와 싸웁니다. 어떤 연출에도 연출자는 연기자에게, 연기자는 다른 연기자에게 사적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연출은 연출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운 감정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연출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소화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연출 목적은 16-17절에 나타납니다.

(16-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에스겔 4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연출 중 하나의 막(幕)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막들을 다 보아야 연출자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장의 막(幕)을 보고 이스

라엘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극의 한 막을 보고 연출자의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4장의 한 막을 보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출연하는 다른 막들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연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막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꼴처럼 달았습니다. 연출의 장면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절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면 슬픔은 기쁨을 위한 것이고, 고통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에스겔 4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 기쁨과 회복과 생명의 말씀이 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을 감당하는 연출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의를 위하여 에워싸임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듯이 에워싸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동여지고 에워싸인 것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관에 예루살렘 성을 그린 후 주변에 다양한 설치물들로 모형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에스겔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에스겔 선지자가 줄에 동여 에워싸이고, 적은 양의 양식과 물로 390일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5.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처럼 해야 할 비슷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에스겔 5:1-17

1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2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가 든 너는 터럭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4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5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6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10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  
 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  
 리니 12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  
 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  
 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13 이  
 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  
 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 거리가 되게 하리니 15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 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 내가 기  
 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  
 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1-3장), 4-5장에서 ‘가져오라’는 세 번의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심으로 마음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토관’을 가져와(4:1) 예  
 루살렘 성과 포위 공격 장치들을 그림으로 멸망을 알립니다.  
 ‘밀과 보리’를 가져와(4:9)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 이후 흩어져 살아갈 사람들의 고생을 알렸습니다.  
 퍼포먼스를 한 지 1년 2개월(4:4-6, 390일과 40일)이 지났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라 하십니다(5:1).

에스겔은 430일을 묶인 채로 옆으로 누워있었고, 매일 퐁으로 구운 잡곡떡 햇반 하나 정도의 양과(4:10) 작은 생수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했기에(4:11),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영양 보충으로 심신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뱃속 깊이 멍이 들어 바람만 불어도 몽둥이로 맞는 느낌이었으며, 피부가 긁아 터지고, 내장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 소화도 어렵고, 몸의 균형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애쓰면 사람들 변화도 보이고 하나님 칭찬도 받으리라 기대할 만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길거리 광대 취급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쉽지 않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1-4)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음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삼분의 일은 성음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음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열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라볼 미래가 예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돌보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은 제사장 기간을 25

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 8:24-25). 하지만 B.C. 597년, 25세의 그는 성전이 아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바벨론 정책상 엘리트가 아니면 잡아가지 않았을 테니, 자질도 있었고 노력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극적으로 어렵사리 하나님을 만나 명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아야 함’을 규례로 정해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레 21:5-6).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번 명령은 그가 평생 되려 했던 제사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몸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버린 제사장 가문 선지자의 퍼포먼스는 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누워있던, 말라비틀어질 것 같은 남자가 일어납니다. 날카로운 전쟁용 칼을 병사에게 빌려 머리털과 수염을 밀며, 굴욕과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 셋으로 나눕니다. 한 더미는 토관에 그랬던 예루살렘 성에 올려두고 부엌에서 가져온 불 조각을 던져 불태웁니다. 두 번째 더미는 불과 연기로 가득한 성읍 그림을 사방에 날리며 칼로 칩

니다. 마지막 더미는 바람에 던져 흩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울 옆에 남은 몇 가닥을 주워 불에 던집니다.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탁탁’ 타는 불 소리, ‘치익’하며 타는 머리카락 소리, 기진맥진한 남자의 헉헉대는 호흡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연기와 탄내가 공간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말하지 않던 에스겔이 말을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11절),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13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15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17절).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6-9)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1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까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9절). 6-9절에서는 ‘규례’와 ‘율례’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11절에서는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심판의 이유를 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약속)을 어긴 백성이 당할 것으로 레위기 26:14-39와 신명기 28:15-68에서 미리 경고되었던 저주였습니다.

(12-13)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었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예배의 자리는 오염된 지 오래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신을 통해 이 분노와 슬픔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수 치와 슬픔이 너무 커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과 수치를 이길 수 없을 것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속내를 보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1년 3개월 동안의 설교를 괴상한 공포 영화 취급했지만, 그는 남은 6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심판을 입으로, 삶으로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상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도 포로들이 넘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일에 매여 달리는 이에 게 벡타이와 양복은 밧줄과 쇠사슬입니다. 더 비싸고 화려한 것을 사야 한다는 소리에 돈을 쓰지만, 늘어가는 것은 카드값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거나, 토익을 만점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교과서를 끌고,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피라미드를 향합니다. 인터넷 SNS 세상 엄지손가락과 하트에 울고 웃고 초조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와 무엇의 포로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에스겔을 찾고 계십니다. 포로 된 자신에 절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 아무도 듣지 않음에도 1년이 넘도록 묵묵히 말씀대로 살고 먹고 눕고 말하는 사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사람, 세상의 논리를 미친 듯 역행하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것은 괴상한 공포영화가 상영되는 극장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보이실 것이며, 그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강렬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소비사회와 야근사회와 학력사회와 중독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무엇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더 많은 돈, 좋은 직장, 높은 학력, 많은 추종자를 가지면 나아질 것이란 환상을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된 하루와 지난한 세월을 견디며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것만 있으면, 이 자리에만 서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돌아봅시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내 미래를 막으시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기 위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4.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5.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적어봅시다.

6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6:1-14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이 주 여호와와 말씀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5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찌지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9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10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론즉 13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경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2차 침공을 하여 많은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었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1-7절까지는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에 대해, 8-10절까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한탄함에 대해, 11-14절까지는 심판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여호와로 볼 수 있습니다.

###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1-7)

(3)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사무엘 시대에는 산당이 부정적인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B.C. 930-909년)이 벧엘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산당을 지은 이후로 산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 즉 우상숭배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높은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산당’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높은 곳’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던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다고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높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러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너희 제단들’, ‘분향 제단들’, ‘너희 우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고,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분향 제단’이라는 단어는 ‘태양 기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사를 드리는 건물’이나 ‘예배실’도 함께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과 관계된 것은 제단이든 건물이든 모두 다 철저히 부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호의호식’만을 빌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을 이제 철저히 벌하시고, 그들이 ‘호의호식’을 빌었던 제단 주변에서 죽도록 하여 우상 앞에 엎드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는 평안은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면 하나님이 아닌, 결코 영원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호의호식’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 아무리 집착하고 열심히 빌어도 결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살아남은 자들의 한탄(8-10)

(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의 특징은 악에 대하여 이제는 한탄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9)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살아남은 그들은 예언되었던 모든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그제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를 당한 뒤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 심판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여호와(11-14)

(1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뺨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탄식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가증한 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11절의 ‘가증한 악’에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역겹다, 혐오스럽다’에서 왔습니다. 즉 ‘가증한 악’은 ‘역겨운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역겹고 끔찍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2)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참 광범위합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4)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역적으로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블라’는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나오는 ‘리블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하맛에 있는 북쪽 지경의 도

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는 표현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남과 북의 순서만 바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지역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지역,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10)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거야!', '이 정도 불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벌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할 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이윽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

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나만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늦은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않도록 역겨운 죄악들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있는 ‘산당’까지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당신 안에 교만함으로 높이 세운 ‘산당’과도 같은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모든 재앙을 경험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한탄하였던 것처럼  
당신도 때늦은 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3.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 속에 ‘역겨운 죄악들’과 같은 ‘가증한  
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당신은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매일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행한 대로 심판하리니

에스겔 7:1-27

1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 내가 너를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7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8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9 내가 너를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10 불지어다 그 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쫓아 피며 교만이 짝이 났도다 11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12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

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13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목사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라 14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16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17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18  
 그들이 굶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  
 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들  
 이 됴이로다 20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21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22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  
 와서 더럽히리라 23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  
 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찻음이라 24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  
 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  
 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목사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울

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27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들이 알리라

에스겔을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  
러 가지 환상과 음성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6장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말씀  
하신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끝이 왔  
음을,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임을 말씀  
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서 너무도 엄격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택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1-13)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당하여 끝이 오리라  
는 말씀이며,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구체적  
인 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심판에 대한  
서론입니다.

(1-3)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데,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공의로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열 가지 재앙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이러한 과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기왕이면 심판의 과정 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삶이 더 훌륭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과 재앙의 날에 대한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의 산에서 즐거이 부르던 날이 아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과거처럼 수확의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를 지르던 것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죽음과 환난으로 신음하는 소리만이 온 성내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역시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8-9)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그날은 아주 요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급하게 분을 쏟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죄인 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앞에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엄하게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맞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 민감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맞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힘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때로 매를 맞는 경험도 우리에게서 큰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재앙과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10-11) 불지어다 그 날이로다 불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몽둥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으로 비유된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변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정복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때에는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율법에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변질되어 토지 거래가 성행했었지만, 그마저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더 이상 사고팔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0년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더 이상 사고파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이 받는 벌(14-27)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예언합니다. 14절에는 나팔을 불어 전쟁을 예비해야 하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것이며,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엘리사 시대에 아

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 성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밖에서는 싸움으로 죽어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지만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게 되는데,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울 것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골짜기에서 울면 메아리가 쳐서 더 구슬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 슬퍼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피 우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돌이킬 기회를 얻기에 복된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힘이 빠지며 몸도 연약해집니다. 결국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굵은 베로 허리를 묶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에는 수치가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근심 가운데 수치와 슬픔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치욕적이며 처절한 슬픔을 가져다주는지 보여줍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 받는 벌로 인해 그들이 사랑하던 재물을 아주 천하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던 은과 금이 자신들을 지

켜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만족을 주거나 그것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살아갈 터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서 더 분에 넘치도록 소유하고자 하고 재물을 탐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고 배를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가 결국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됩니다.

(25-27)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목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왕은 애통하게 되고 고관은 크게 놀라게 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행함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대로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곳곳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작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도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의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와 우상과 교만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굽은 허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과 진리와 자유 안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던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직까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께 그들을 연결해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꼭 필요한 벽돌

한 장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게 드러지게 하시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죄의 직분, 의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들을 잡아 일으켜주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시하던 죄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이 깊이 새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깨닫고 체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3. 나의 인생에서 때로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4.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적정 믿음'은 무엇입니까?

##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 8:1-18

1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2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릿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

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복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 질투의 우상(1-6)

에스겔은 모두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4-24장은 유다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본문 8장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숭배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는 표현은 약간 뜬금없어 보이지만,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가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넷째 달 초닷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꼭 1년 2개월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장로들과 함께 집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모두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큰 공사에 투입해서 일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두어 놓을 것이라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목숨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왕이나 최고 귀족, 뛰어난 학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은 가두어 놓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한 지역에 모아 놓고 일을 강제로 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손)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눈부시게 빛나는(또는 별정계 달구어진) 철과 같이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3-4)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 한 모숨(머리카락이나 국숫발처럼 가늘고 긴 것이 한 손에 들어올 만큼의 양)을 잡고서 끌고 가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머리채를 잡혀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 줍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우상이 므낫세 왕 때에 자신이 스스로 목상을 조각해서 성전에 가져다 두었는데(대하 33:7),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므낫세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숭배가 다시 시드기야 왕 때에 팽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우상을 북쪽 문에 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에서 오니까 이 우상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이름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질투의 우상’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지켜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북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큰 가증한(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성전 내에서의 우상숭배(7-13)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어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을 헐라고 말씀하셔서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9-10)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벽을 헐자 거기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이 숭배했던 우상이 벽 사면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전 북쪽 문 어귀에 있던 ‘질투의 우상’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벽면에 새겨진 곤충과 짐승, 우상들은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 동물 형상의 우상들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의 곤충이 등장하는데, 그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곤충들을 형상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서

는 악어, 뱀, 딱정벌레 등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8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에서는 전통 강대국인 애굽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벽사면 전체에다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가득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음은 단지 우상을 그려 놓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12)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유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비록 망할지라도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반복

해서 말씀하셨지만, 70명의 장로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지도 않으시며, 버리셨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주도하는 70명의 장로 중에 ‘야아사냐’도 있었습니다. 그가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섰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주동자, 최고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야아사냐’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반’은 요시아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그것을 주도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반의 세 아들 중 ‘아히갑’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고(렘 26:24), 또 다른 아들인 ‘엘라사’는 시드기야 왕에게 중용되어 바벨론까지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렘 29:3).

그런데 남은 아들 ‘야아사냐’는 성전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대표하여 반바벨론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것은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더 가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 담무스 숭배와 태양 숭배(14-18)

(1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여인들이 우상 담무스(Tammuz)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무스’는 고대 수메르의 신이었는데, 풍성한 결실과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김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인 6월 5일은 팔레스타인에 건기(乾期)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 담무스 신이 지하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를 주관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함으로써, 담무스가 다시 지상 세계로 올라와서 비를 뿌려 줌으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늦은 비의 자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이미 오래전에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가증함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증함의 ‘끝 관왕(종결자)’이 남아 있었습니다.

(16-18)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깊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하는 현관과 제단 사이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25명은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24 반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5명은 각 반열에서 제사장 1명씩과 총감독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북문 부근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숭배하며 애곡하고 있고, 성전 뜰 문 안쪽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70명의 장로가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는 종교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가증함 위에 가증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실 것이며,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유다의 붕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본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그밭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서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환상을 본 날짜가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는 해, 6번째 되는 달, 5번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잊힐 수 없는 거룩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거룩한 사건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유다 백성들과 여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유다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우상숭배를 자행했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여덟 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에게 허리가 펴진 날은 결코 잊히지 않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거룩한 사건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잊히지 아니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자리에서 ‘적정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환상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질투의 우상을 세울 수 있으며, 장로들이 집단으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지, 또 여인들이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에 불과한 태양을 숭배할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적정 믿음'을 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목상을 돕는 질문

1.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날짜(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이 또렷하게 기억되는 날짜가 있습니까?
2. 유다가 무너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3.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는 가족들이 걷은 신앙의 길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가족들과 다른 길을 걷는 부분은 없습니까? 또한 불신의 가족들과 다르게 걸어야 할 길은 없습니까?
4. 하나님 외에 다른 것(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9

이마에 표 있는 자

에스겔 9:1-11

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관의 떡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관의 떡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잦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갓으리라 하시더라 11 보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띠 그 띠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 하였나이다 하더라

###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1-6)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은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이 현실의 어려움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하고 부끄러울 만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성문 어귀의 여인들도 모두 저마다의 우상숭배에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을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했습니다. 자비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철저하게 내리시는 분노의 하나님 음성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섯 사람이 손에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로 서게 됩니다. 각기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든 파괴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처럼 몽둥이나 망치를 드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멸할 정도의 강력한 무기를 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발생한 하나님의 분노, 슬픔, 좌절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습니다.

(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본문의 ‘그 중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뻬토캅’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심판자 6명과 1명의 먹 그릇을 찬 사람으로 총 7명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는 베옷은 기늘고 고운 흰색의 세마포를 의미하면서, 제사장의 의복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먹 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며, 탈무드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먹 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는 그가 담당하는 사역에 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인 22번째 글자

‘타우’를 그렸습니다. 이 글자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맥 그릇을 든 이에게 내려진 명령은 탄식하며 울고 있는,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4-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핍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식을 그려주셔서, 심판하는 천사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상숭배자들, 부정하고 더러워진 사람들, 죄악에 둔감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 됨을 거부하고 늘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들,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들,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차디차게 굳어버린 마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악해져 가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주신다는 약속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이마에 그려진 표식은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그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출 12:22-28)을 연상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십사만 사천 명을 연상(계 7:1-8; 14:1)하게 합니다.

### 중보기도자 에스겔(7-11)

심판자들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은 이마에 표식이 없음으로 심판받아 죽은 시신들을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성전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8장에서부터 묘사되는 성전에서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는 더 이상 성전이 성전될 수 없던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지고 어긋나버린 이상,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유다의 안일한 신앙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잔혹한 학살, 하나님의 강한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자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옆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던 선지자 에스겔은 홀로 섰습니다. 죄악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때에도 선지자는 심적인 고독함과 절망감에 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의미는 얼굴을 떨어뜨릴 정도로 급속히 땅에 이마를 대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고,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는 너무도 빠르고, 나 하나로는 세상과 맞서기에 미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감당해왔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도 멸망 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기도 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창 18장). 아모스도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보자 그 재앙을 거둬달라고 중보기도 하였습니다(암 7:1-6).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처럼 중보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9-1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갓으리라 하시더라

회개 없는 사람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 무겁고 커서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땅은 피가 가득하였고, 성읍은 불법이 가득 찼습니다. 법과 규정은 무시되었고, 정의는 왜곡되었으며, 악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밭붙이고 사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과 성범죄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소식들,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해치며, 회사와 조직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갑질을 하고, 사람과 짐승을 학대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정하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 말씀이 굽어진 우리 삶을 온전케 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위에서 함께 새로워져야 합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보며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군림하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며, 잃었던 눈물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나의 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였고, 사람을 더 신뢰하였으며, 내 이름 석 자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약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 허는 찻지만, 가슴은 아프지 않았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보며 아무런 공감 없이 내 배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뜨겁던 눈물은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없어진 지 오래되어 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우리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옵시고, 굳어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적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참혹한 우상숭배를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해지게 되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의 분노, 슬픔, 좌절의 표상인 무기 든 여섯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3.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주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물든 세상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4. 중보기도자 에스겔처럼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고 오늘 하루 중보기도자로 살아갑시다.

## 성음 위에 흠으라

에스겔 10:1-22

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  
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  
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음 위에 흠으라 하  
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7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9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  
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10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  
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1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  
으로 나아가며 12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

귀의 들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3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  
 이라 부르며 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6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  
 지 아니하며 17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18 여호와의 영광  
 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 그룹들이 날개를 들  
 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 그것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  
 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21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  
 상이 있으니 22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힌 지 제6년 여섯  
 째 달 5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에 이끌려 예  
 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겔 8:1, 3).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에스겔 선지자  
 가 보았습니다. 9장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베 옷을 입고 허리에 떡 그릇을 찬 사람이 선도자가 되어 심판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0장은 그 이후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숫불을 두 손에 들고(1-8)

(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시는 장면을 볼 때 그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궁창은 ‘넓은 공간’, ‘하늘’을 뜻합니다. 그룹들 위에 궁창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하늘처럼 보이는 어떤 상(像)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파이어 같은 푸른빛의 보석이 있었고 그 위에는 왕이 앉는 절대 권한을 상징하는 보좌로 추정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세상의 어떤 값진 보석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에 머무셨습니다. 10장 4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

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마치 승용차처럼 승차하셔서 그룹들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고, 성전에 도착하셔서 성전 문지방에 하차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머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흠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수행했던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취하여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숯불은 오염된 부분을 소멸시킴으로 무엇을 정결케 하는 물질로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더라면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으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가길 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을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할뿐더러 함께 지어져 가자는 것은 구호로 그칠 것입니다.

(3-5)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3-5절은 그룹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고, 그룹들이 움직이는 날갯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장엄하고 거룩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6-8)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룹들 사이의 불은 2절에 있는 숯불입니다.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이 두 번 반복해서 숯불을 꺼냈다기보다 첫 번째 하

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갔었고, 그룹들 바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재차 불을 가져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실 때는 숯불을 가져가는 목적을 말씀 하셨고, 두 번째 불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목적을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보면 베 옷을 입은 사람이 직접 숯불을 취할 것 같았는데, 막상 바퀴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한 그룹이 불을 취해서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불을 받아서 나올 때는 그룹들 날개 밑에 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그룹들을 보고 좀 더 상세하게 그룹들의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눈이 가득하더라(9-22)

(9-13)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9절을 보면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다고 하며 그룹마다 한 바

퀴이니 그룹들의 수는 4입니다. 바퀴는 황옥처럼 빛나며, 10절에서는 바퀴 4개는 똑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고 하니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네 사람이 한 곳을 보고 있다가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각자 몸을 진행 방향으로 돌려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그룹의 얼굴이 네 면으로 4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리지 않고 어느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뒤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몸을 돌려야 하지만 그룹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룹에는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4개의 얼굴에만 눈이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온몸에 눈이 있고 심지어 자전거나 마차의 바퀴로 생각할 수 있는 바퀴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하니 이 바퀴는 인간의 경험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바퀴입니다. 이 바퀴는 자전거나 마차의 바퀴처럼 생명이 없는 물체가 아닐 것입니다. 바퀴는 그룹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룹들의 4개의 얼굴에 대해서는 1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에 대한 얼굴 묘사는 1장 10절에도 있습니다. 1장 10절과 다른 점은 첫째 면을 소의 얼굴이라 말하지 않고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1장 10절에서 사람의 얼굴을 기준으로 오른쪽 사자의 얼굴, 왼쪽 소의 얼굴, 뒤쪽 독수리 얼굴입니다. 이를 종이 위에 그려 놓고, 소의 얼굴을 첫째로 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 10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둘째가 사람의 얼굴, 셋째가 사자의 얼굴, 넷째가 독수리 얼굴이 됩니다. 15절과 20-21절에서 이 그룹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18-19)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안착하시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신 후 다시 그룹들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성전 동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옮겨졌으며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8-11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 이유가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으시거나 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기만행위를 일삼으면서 기복주의 종교 생활에 빠진 도시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내리시듯 벌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부정한 입술이 죄 사함을 받았듯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나타난 숯불이 심판의 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0.1초도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악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세상의 어떤 값진 보석보다 높으시고, 온 우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기 위해 먼저 말씀의 숯불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배움을 입은 사람이 숯불로 죄악을 불태우듯이 이 시대 말씀의 숯불로 죄악을 불태우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이 있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2.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에 숯불을 받아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그룹들의 손, 얼굴, 바퀴, 날개 등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4.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그룹들조차 온몸에 눈이 달려 상하, 좌우, 앞뒤, 전방위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5.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숯불의 심판을 받았습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돌 같은 마음 vs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11:1-25

1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나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9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별을 내리리니 10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1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12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

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  
 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13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14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이라 하였나니 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  
 으며 너희를 흠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  
 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  
 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  
 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2 그 때에 그룹들이 날  
 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에 머무르고 24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료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5 내가 사료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 예루살렘이 심판받다(1-13)

에스겔 8-1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행(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성전환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그것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13절은 성전 동쪽 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명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의 동쪽으로 난 정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2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도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의 사람(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었을 것)이 있었는데, 본문에도 동일하게 25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숫자는 동일하지만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 그룹이 있는 위치(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와 동쪽 정문으로)가 다르고, 신분(한 그룹은 제사장들, 다른 그룹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

고 하는 것은, 종교와 정치를 비롯하여 유다의 모든 분야가 철저하게 타락하여 하나님ی 없는 것과 같은 삶,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25명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아사냐’와 ‘블라다’입니다. ‘야아사냐’는 공교롭게도 8장의 성전 골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70명의 장로에 주동자의 이름과 같은데, 동일 인물이 아닌 동명이인(同名異人)입니다. 8장의 ‘야아사냐’는 ‘사반의 아들’이고, 본문의 ‘야아사냐’는 ‘앗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고 전했지만,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빼앗긴 성전기구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앗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고, 또 한 사람은 악한 꾀를 꾸미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용감하였다’가 아니라 ‘형제는 악하였다’인 셈입니다. 야아사냐와 블라다를 비롯한 25명의 백성의 지도자(고관)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2-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하나님께서서는 25명의 지도자를 ‘불의를 품는 사람들’이고,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의’는 ‘고통과 불행 쪽으로 나아가는 것’과 ‘헛됨(우상숭배와 관련)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악한 꾀’는 ‘바르지 않은 조안’이나 ‘나쁜 충동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불의’와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르지 못한 25명의 지도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 에다 집을 짓고 살며,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일도 없고, 거기에서 집을 짓는 것은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즉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쇠로 만든 가마와 같아서 깨어질 리가 없고(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고), 고기(살\_생명)인 우리는 그 무쇠와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25명의 지도자는 당시 이미 예루살렘이 2번이나 침략을 받아서,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음에도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마와 고기’의 이야기가 7절과 1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25명의 지도자와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불 때는 아궁이에 큰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마솥에 기름을 두르고 쇠고기 한 덩어리 던져 넣고 불을 때면, 그 쇠고기는 이내 스테이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스테이크를 굽는 가마솥이 되어서 오히려 도망도 가지 못하고 갇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6)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족속(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자행하여 거리를 시체로 가득하게 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특히 지도자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심장(마음)’을 뜻하는 단어(레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 정, 의’를 뜻하는 단어(네페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추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어기고, 지키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반듯하게 사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웃에 사는 이기심만 가득하고, 포악하게 사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부모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심하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14-25)

14-25절은 패역함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하나님

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형제, 친척 등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소유가 되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B.C. 605년과 597년,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여호야킨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 습니다. 그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끌 려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 리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었으니, 예루 살렘을 차지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자신들은 하

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바벨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시는 기간이 ‘영원히’가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포로 기간이 길거나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끝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20)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준 여러 유익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숭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책망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준 또 하나의 유익은 회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그 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로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포로 후에는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2-23) 그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지성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것이 에스겔 9장과 10장에서는 성전 문지방과 성전 동문에 머문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감람산)에 머무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25)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8장에서부터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선지자를 갈대아(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동족들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사로잡힌 동족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현실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 용모가 변화되시고,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이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일예배나 교회와 수련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떠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수련회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펴 주시는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로운 것이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적정 믿음’을 행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복을 짓고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어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욕망 성취, 자기중심적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순종해야 할 '적정 믿음'을 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야아사나와 블라다와 같은 고관들은 가마와 같은 예루살렘이 지켜 줄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당신은 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미혹되신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돌 같은 마음'과 잘 유지해야 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영은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실로 돌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성령님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에스겔 12:1-28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네가 번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번역하는 족속임이라 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번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5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6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7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8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번역하는 족속이 내게 물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11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2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

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13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야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흘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흘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헤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7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됴이라 20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됴이냐 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목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4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

되 2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목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본문 1-20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로가 행장을 꾸리고 도망가는 모습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21-2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결국 실현될 것을 거듭하여 경고합니다.

#### 첫 번째 징조, 포로의 행장(1-16)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말보다 그와 관련된 행동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주고, 강한 전달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2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지만, 상징적인 징조를 보이면 혹여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벽을 뚫고, 밤에 포로처럼 이동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에스겔을 보고 백성들은 의아해하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그 의미가 장차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양식이 끊어지면, 백성들이 성벽의 구멍을 뚫고 밤에 몰래 도망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고 그 군대는 유다의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밤중에 성벽의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치다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의 추격을 받아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고 호위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 두 번째 징조, 두려움 가운데 식사(17-20)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

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 함락 당할 때, 성안에서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떨면서’에 해당하는 단어 ‘라이쉬’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놀라고 근심하면서’에서 ‘놀라고’란 단어 ‘빠로그자’는 구약 성경 중 에스겔 12장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 심신(心身)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동족이 당할 환난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예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을 반드시 ‘그들의 목전’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이란 다른 말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주의를 갖기는커녕, 비웃거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의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행위를 통해 더욱더 죄악에 스며들어 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치절한 황폐함을 겪었습니다.

(19-20)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치절한 황폐함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내면적 타락과 탐욕, 이기심 등 수많은 윤리적인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19절에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선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복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하고, 사람이 악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내가 밟는 모든 땅, 삶의 영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단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황폐함을 겪은 유다 백성들은 훗날,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깨닫고 자신들의 반역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먼저 회개가 그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직면하여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삶이 말씀의 바른 궤도에 올라있는지 돌아보고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에 10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도 123층이 되는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런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1시간마다 GPS(위성 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GPS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0층 건물을 바로 짓기 위해 GPS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궤도로 함께 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일지라도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의 분명한 실현(21-28)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의 목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꾀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십니다.

(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됴이나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속담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실현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 실행되지 않거나 혹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치부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내 허리가 굽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어루만져주시고, 그 굽은 허리를 펴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분명 이루어지며,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25)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번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거듭 밝히시는 이유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하신 소망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의 생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움’은 확고부동한 선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모든 효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생전에 즉각적인 효력과 성취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심에 서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굽은 허리를 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과 무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죄로 말미암은 황폐한 길을 걷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황폐한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또 광야라는 슬픔에 주저앉아 있고, 허리가 굽은 인생을 살지라도, 이미 내 앞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려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말씀의 징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삶에서 황폐함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의심하거나, 그 확신이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3.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바른 신앙의 궤도로 가기 위해, 돌이켜야(회개)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13:1-23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3 주 여호와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와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너는 회

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12 그 답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찰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펴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14 회찰한 답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답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찰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찰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16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목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욱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2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목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  
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 여호와의 말씀(1)

###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어 전할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이어 그 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는 앞서 기록된 장들과 뒤이어 기록된 장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의 주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어 기록된 내용들이 말씀의 주체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향한 심판 경고가 시작됩니다.

###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2-16)

(2-3)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로 번역된 원어 ‘חַי(호이)’는 심판의 대상이 저주 아래에 떨어지게 될 것과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는 이의 가슴 아픈 심정을 함축합니다. 이 표현은 훗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심판이 예고된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방에서나 행하는 점괘를 보는 동시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주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의 주체가 된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본 절은 심판의 내용과 방법, 목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더 이상은 여호와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떠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심판의 방법으로 ‘내 손’이라는 신인동형동성론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신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둘째로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심판의 분명한 의지와 그 내용을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9, 14, 21, 23)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침을 하는도다

‘유혹’으로 번역된 원어 ‘*iyton*’(히트우)는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참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착각에 빠뜨려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게 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반복해서 전한 후(11-16)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가 이어집니다.

###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17-23)

(17-18)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앞서 살펴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도 이방의 미신적 행위를 답습하며,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심판 경고도 동일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앞선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 증거가 이어집니다.

(20-21)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 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심을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에게 억눌렸던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구원의 약속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목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격한 심판 경고를 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게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길을 잃어 주저앉은 아이를 향해, 먼발치에 선 아버지가 손을 높이 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를 헤아려봅시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이토록 드러내는 이유는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겨자씨 한 알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의)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겨자씨 한 알을 심어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처소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날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이 시대 거짓 선지자(예언자)들의 모습과 본문 속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3.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지 헤아려 봅시다.
4. 점괘(부적)와 같은 미신적인 부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에스겔 14:1-23

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호대로 보응하리니 5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2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  
 하여 이르시되 13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  
 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  
 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  
 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5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  
 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  
 하게 한다 하자 16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  
 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7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  
 기에서 끊는다 하자 18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19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  
 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2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  
 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2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2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  
 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  
 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우상숭배 심판(1-11)

오늘 본문은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중신앙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1절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내치실 것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아와  
앉았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할 중요한 말  
이 있거나,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꼭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3)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몇몇 장로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칭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거나 적반  
하장의 태도로 나올 때 우리 입에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저  
절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가 그  
런 의미입니다. 이 장로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서 왔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고, ‘걸려 넘어지  
는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통나무’라는 의미도 있고, ‘배설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숨만 쉬어지는 것들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걸려 넘어지는 것들, 악한 습관이나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즉 답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중신앙자들에게 직접 응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를 들면 어떤 약물중독자가 집안에다가 수습 지나 되는 마약을 두고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약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물의 숫자대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견줄만한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요?”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들 그 삶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서 ‘모든 자’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증신양자들을 무더기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딴 길로 가다, 셋길로 빠지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이 다 찢립니다. 우리도 셋길로 가는 데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잡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지, 우상숭배!’, ‘외면, 가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약물중독자가 중독에서 정말 벗어나기 원한다면 그것은 집에 있는 약을 다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한 안방과 거실에 TV를 몇 대씩 두고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TV선을 뽑는 것, 아니 TV를 내다 버리고 TV에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약물을 두고서 “약을 먹지 않게 해 주세요”나 TV를 두고서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던 것에서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응답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셔서 표징과 속담 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진면교사들’과 같습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들’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사람을 뺀히 바라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은 ‘우리를 위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은 ‘우리를 대적하심’입니다.

(9-10)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한 이중신앙자가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 선지자도 사탕발림에 넘어가 이중신앙자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 주면 둘 다 심

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 또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삶을 고치도록 명령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대신해 줄 수 없음(12-23)

12-23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4중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세 사람의 예를 드는데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삶의 상황이 몹시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악할수록 바른 삶은 빛이 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때부터 뜻을 정하여 이방 신전에 먼저 드린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노년이 되어서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됨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음에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사표(師表)입니다.

(13-14)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기근’입니다. 기근은 비가 너무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와서 생기기도 하고, 농작물이 병충해

를 당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외 천재지변을 통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짐을 받는 사람은 건짐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십니다.

(15-16) 기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내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사나운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나운 짐승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도시가 황폐화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맹수가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작은 동물들, 특히 초식동물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늑대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살게 됩니다.

맹수가 거리를 배회하는 곳과 같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

브 뮤직'의 명대사에도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창문을 여신다(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고 합니다.

(17-18)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은 ‘칼’입니다. 고대에 전쟁을 할 때 대표적인 무기가 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에게 ‘그 땅에 돌아다니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칼이 사람은 물론 짐승(가축)까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맹렬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20)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은 ‘전염병’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칼은 숨으면 그 위협에서 피할 수 있는데, 전염병은 대책이 없

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는 생명은 건져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3)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의 4가지 재앙이 극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이유를 수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지금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 속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중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재앙과 포로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 속에 심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장로들의 언행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중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말했던 것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는 이중신앙적인 모습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고치지 않을 때,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생명의 거자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중신앙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2. 선지자에게 바르지 않은 것을 묻는 사람과 바르지 않은 것을 대답하는 선지자는 동일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질 사람은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4. 이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포도나무가 나온 것이 무엇이나

에스겔 15:1-8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3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 불에 던질 땀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땀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산문 형태로 기록되어 오던 에스겔서는 15장을 운율이 있는 운문 형태로 서술합니다. 산문이 운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해당 본문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서술의 형태를 바꾸어 사람들을 집중시키면서 에스겔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로 자신들을 비유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매를 통해 평가받는 포도나무라는 측면과는 다르게 본문은 그 나무 자체의 사용을 통해 평가받는 포도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를 열매가 아닌 하나의 나무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의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땀감으로 사용될 쓸모없는 포도나무라 칭하고 계십니다.

###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1-5)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신탁 인용 도입구를 통해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며, 메시지의 권위를 하나님께로 둡니다.

(2a)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무엇보다 열매로 평가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풍요로운 열매뿐이었

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나 포도 주스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는 석회암으로 덮여 있는 이스라엘에서 식음용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담가둔 포도주나 포도 주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로써 농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사야의 기자는 증언합니다.

(사 5:1-2)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어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시고 불품이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기름진 산에 심겨진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들포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열매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이제 목재로써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마저도 좋은 평가를 받을만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2b-3)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가지 또한 여러 나무와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무늬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려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구나 배를 만들 수 있는 울퉁고 크게 자라나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단단하지도 않고 재질이 무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나무로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포도나무의 특징으로 못을 제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땀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5) 불에 던질 땀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로도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목재로도 사용이 되지 않는 이 포도나무는 그저 땀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굵은 가지가 적고 잔가지만이 많은 포도나무는 땀감으로도 좋은 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무는 이미 두 끝이 타버린 나무였고 가운데는 솟이 되어버려 땀감으로조차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온전해도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가 이미 많이 타버렸으니 더더욱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땀감이 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 비유에 관한 해석(6-8)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땀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당대에 그저 무가치한 나무에 불과했던 포로된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라 칭하시며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기름진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으로 옮겨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무르익도록 마음을 다해 기르셨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땅, 가나안에 심기운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자신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셨던 농부, 하나님의 기르심에 따라 좋은 열매로 보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주인이 주는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독수라는 것을 잊은 채, 가나안의 이교도신앙이었던 바알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단번에 베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독수를 머금고 자라는 이 포도나무에게 누누이 선지자들을 통하

여 일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우기 전에 두 끝을 태우는 고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귀를 막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며, 이 독수를 품은 포도나무를 딸감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처참했습니다.

(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자비는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니 참으로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에서 힘들게 나온다 할지라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맹렬한 심판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주인인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뼈가 저리도록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 짐승들의 거처가 될 정도로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법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불성실하게 행하다’, ‘배신행위를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부정이나 남편의 외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면서 우상으로 점철된 그 땅이 정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동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모두 내쫓아 버리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법함, 즉 여호와에 대한 영적인 음행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되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가며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는 답답해하는 마음도 있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책임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아 가나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울 책임을 가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또다시 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의 기도를 통해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

스림에 대한 소망을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옮겨진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독수에 젖어 내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자기의 삶,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 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기르심의 끝에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포도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로 의탁할 때, 비록 거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혹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포도나무이지만,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좋은 포도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없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끝을 사르는 경고를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이 있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3.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할 장소, 하나님께서 심으신 기름진 산은 어디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4. 그 장소에서 당신이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삶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에스겔 16:1-34

1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  
람이요 네 어머니는 헛 사람이라 4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  
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  
나니 5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  
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6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  
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7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이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  
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별거벗은 알몸이더라 8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별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  
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9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  
게 기름을 바르고 10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되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11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  
 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14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 그러나 네가 네 화려  
 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  
 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 네가 네 의복을 가지  
 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  
 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 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  
 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2 네가 어렸을 때에 벌  
 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24 너를 위하  
 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25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  
 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27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퍼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  
 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28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

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29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30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31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2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3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었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였지만,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15장에 이어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였는데 16장에서는 한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

던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변질되었기에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16장 중 오늘 본문은 여인의 태생과 성장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 16장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 네 근본과 난 땅은(1-14)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깨닫도록 한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인의 출생지와 부모의 혈통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혈통을 알려주신 것은 여인과 부모의 태생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을 알려 주십니다.

(4-5)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의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출생의 비밀을 안다고 말하며 ‘주워온 자식’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주워온 자식 정도가 아니라 출생시 상황을 더 상세하게 들었는데 그 내용이 배꼽 줄을 자르지도 못 했고 물로 씻지도 못 했고 소독도 못 했고 포대기로 몸이 감싸이지도 못 한 채 길에 버려졌다고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생부는 생모 출산시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가 밖에 버려졌는데 극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아이가 밧짓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가서 양육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들의 풀같이 풍족하게 키웠습니다. 여자아이는 2차 성징(性徵)이 나타날 정도로 자라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이 여전히 어린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8절을 보면,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남자가 이제 아이가 소녀가 되었으니 사랑할만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소녀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소녀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혼과 같습니다. 아내로 맞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사회에서 버려진 핏덩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아이를 양육해서 결혼적령기가 되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일반인이 아닌 왕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양육하여 아내로 맞아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버려진 아이가 커서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데 많은 아내 중 한 명이 아니라 왕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진토와 같은 존재였지만 존귀한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려진 갓난 여자아이가 소녀가 되고 왕후가 되기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9-1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13)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에스겔 선지자 당시 여인들이 들었을 때 최고로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묘사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어떻게 미용하고 치장해야 부러워하겠습니까?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피부

관리와 화장, 값비싼 명품 신발과 의상과 금은 장식품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왕족인 셈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버려진 여자아이가 왕후까지 올랐습니다. 왕후가 되어 행복하게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더라고 인생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입혀준 영화(榮華)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 네 화려함을 믿고(15-34)

(15)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왕후가 된 여인의 명성과 화려함이 주변국에 퍼졌습니다. 이 여인은 왕후가 되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행했다는 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방자한 음녀’, 31절에는 ‘창기’, 32절에는 ‘간음하는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행음하였고, 28절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였고, 29절에 갈대아 사람과 행음하였습니다. 왕후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는 핏덩이로 버려진 어린아이가 왕후까지 오르게 된 은혜를 망각한 여인 예루살렘의 음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행위를 비유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이 누구로 인함인지를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왕을 버리고 행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16)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몄습니다. 이 옷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7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8절에 수 놓은 옷, 기름과 향, 19절에 음식물, 20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의 도구와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용처를 꼼꼼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적절한 행동인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어이없는 행동인지 생각해 봅시다.

(22)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거 상태를 잊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했거나 비참했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후의 어렸을 때처럼 벌거벗은 몸, 피투성이가 되었던 몸으로 손을 오므리고 발짓하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빛진 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매어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애굽과 같은 가치관, 앗수르와 같은 사상과 이념, 갈대아와 같은 경제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의 가치관을 따라 무분별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한눈을 팔아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깃들여 감사하며 살아가

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생아와 같고 고아와 같은 저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여전히 길에 버려진 핏덩이 갓난아이처럼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과 불의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품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과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갖다 바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핏덩이로 버려진 여자아이처럼 과거 쓰러린 시절을 회고해 봅시다.
2.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3.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되었지만 왕후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5. 왕후의 행동을 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 16:35-63

35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와 말씀의 들을지어다 3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8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39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40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42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44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45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

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헛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46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47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  
 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48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  
 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9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  
 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51 사  
 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52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  
 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  
 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53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힘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어 54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55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  
 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56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57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58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

니라 나 여호와와 같이니라 59 나 주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떨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1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63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와 같이니라

###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선언(35-43)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불가피성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특히 35-43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여인과 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35)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음녀’라고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땃줄도 자르지 않고, 몸에 핏기를 씻지도 않고, 들판에 버려진 여자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으로 바르고, 수놓은 옷과 가죽신을 신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후의 지위’에까지 얹혀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여자아이도 그런 신데렐라

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했던 자신(예루살렘)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심하게 음행(우상숭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집안을 무속인의 집처럼 꾸며놓고, 아무 신이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신을 찾으며 온갖 정성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끔찍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 여러 남자를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의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몸을 파는 여인은 화대를 받지만, 예루살렘은 돈과 선물을 주면서까지 음행(우상숭배)을 하였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음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누추한 것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추한

것'의 문자적인 뜻이 '청동, 놋'인데, 돈을 낮추어 말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추한 것'을 새번역성경은 '재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에 재산을 낭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정든 자와 행음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든 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애굽이나 앗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을 뜻하고,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몰렉신에 자녀를 인신공양하였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우상숭배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첫 단어 '내가'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잘 보라, 똑똑히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여인과 정들었던 사람(나라)과 사랑했던 모든 사람(나라)과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나라)까지 대적자로 등장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옷 벗김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여인을 재판하듯

이 예루살렘을 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벌은 모두 사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선물을 주며 음행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를 저지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그냥 넘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그토록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던 것은 자신의 출발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땃줄도 자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으며, 강보도 없이 들판에 버려진 아기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왕후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과 신앙에서 무너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초심(初心)과 자신의 출발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처음에 자신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은혜와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심판의 정당성(44-52)

44-52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죄악의 도시인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44)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44절도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전자전(父傳子傳)’, 아니 ‘모전여전(母傳女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딸이 어머니의 성품이나 인격을 넘어 더 뛰어날 수 없다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는 속담이었습니다.

3절에서 예루살렘에 네 어머니는 ‘셋 사람’이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갓 태어난 딸의 배꼽 줄도 자르지 않고, 목욕도 시키지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들판에 버릴 정도로 비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예루살렘)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46)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의 형(언니)이 사마리아이고, (여)동생은 소돔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였기에 척박한 산간지방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인 여로보암 왕 때도 그러했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시절에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보다 136년이나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은 염해(사해) 중간 아래쪽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초록은 동색이다’ 처럼 예루살렘이 이런 사마리아와 소돔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돔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소돔의 성적인 범죄는 언급되지 않고, 그들의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소돔이 교만했던 것은 음식물(재산)이 풍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풍족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눌 줄 알아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과 탐욕이 소돔 멸망의 원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과 탐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조차 예루살렘보다 죄가 가볍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도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행하는 것을 보면 언니인 사마리아와 여동생인 소돔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즉 사마리아와 소돔이 전과 100범과 200범이라면, 예루살렘은 그것을 합한 것과 같은 전과 300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 징계와 회복, 그리고 새 약속(53-63)

53-63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소돔의 징계와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3-54)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께서서 예루살렘과 소돔, 사마리아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3절에 ‘사로잡히다’가 5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깊고 강하게 이상승배에 잡혀 있었던 삶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회복이 되었지만, 소돔이라는 도시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돔’

은 ‘이방인’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은 자신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지만(43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릴 때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불변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62-63)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마침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용서받게 되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용서하다’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무엇무엇을 덮다’입니다. 한자 ‘옳을 의(義)

자는 ‘양 양(羊)’자 아래에 ‘나 아(我)’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나를 덮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어떤 도시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제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은총을 입고서도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퍼 히어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 은총에는 큰 순종이 따른다’이어야 삶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오늘이, 비록 겨자씨 한 알 처럼 작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짝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영원한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루살렘은 왕후의 신분에서 음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 중에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했을 때의 처음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2.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는 속담도 있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에게 받은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언약(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하나님을 등지고 살거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나 여호와와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17:1-24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술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5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6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 7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8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9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1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물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가고 13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14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15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꾀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꾀하겠느냐 16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17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 주지 못하리라 18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꾀하지 못하  
 리라 19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  
 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망으  
 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22 주 여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  
 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  
 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  
 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  
 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해석(1-21)

(1-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통 수수께끼는 ‘뜻을 감추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도록 불명료하고 난해한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표현 방법입니다. 반면 비유는 ‘그것을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강조하는 진실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수께끼인 동시에 비유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수수께끼, 비유로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더 주목해서 듣고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3-10절까지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11-21절까지는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나오는 비유와 그 설명은 서로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락 전체를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솥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가장 사나운 맹금류에 속하는 커다란 독수리가 레바논을 덮

치고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둡니다.

(12)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가고

독수리같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왕이 백향목의 어린 가지 같은, 즉위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 왕 여호야긴을 얼마 전에 끌고 갔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영토는 독수리의 크고 긴 날개처럼 아주 넓고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많았기에 털이 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궁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수많은 인종이 섞여 있어 색깔이 수놓은 것처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이 그 본산지인 동시에, 솔로몬 때 건축한 궁궐들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왕상 7:2). 그래서 유다 왕권을 상징하는 백향목의 어린 가지인 여호야긴은 장사하는 땅이자 상인의 성읍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5-6)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13절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사로잡아온 여호야킨을 대신 하여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수양버들은 백향목과 달라서 낮게 퍼집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속국이 된 유다 나라를 잘 비유합니다. 큰 물 가는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또한 유다 나라는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이제 바벨론에게 매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7-8)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 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제 앞선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처음 독수리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로 묘사됩니다. 이 독수리는 뒤의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애굽을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삶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해지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첫 번째 공급자에게 등을 돌리고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었습니다.

(9-10)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15-16)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시드기야의 외교정책은 어리석음 그 이상이었으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멸 행위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처음에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후에는 배반하여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왕하 24:7, 20). 시드기야는 두 강대국인 동쪽의 바벨론과 서쪽의 애굽을 이용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초강국으로 군림하던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 그보다 열등한 강국인 애굽의 도움을 통해 이루고자 한 반란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19-21)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 택한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

을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압제하에 낮추시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압제자와 언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고,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대하 36:13). 그러나 그는 후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에 아부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상대와의 언약을 깨고 더 약한 자를 의지하는 자의 결론은 파멸입니다. 언약적 종주를 희롱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며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맺은 충성의 서약을 파기하는 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맺어진 서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가 강제로 맹세했던 서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맺어졌기 때문에(대하 36:13),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어겼을 때 저주를 베푸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드기야가 언약상의 종주였던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과 이스라엘이 언약상의 종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유비(類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유다 민족을 반역한 민족, 패역한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벨론과의 역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단지 강대국인 바벨론을 배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 홍해에서 멸망시켰던 병거와 마차에 소망을 걸었습니다(출 15:4). 이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

반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근시안적인 통찰력을 갖고 시간과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사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처한 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언약의 파기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묵인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책임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파기자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시드기야처럼 삶의 무게로 지쳐 있고 앞뒤가 막혀 활로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미래가 흐렸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흐리지 않습니다.

#### 높은 나무를 낮추고(22-24)

(2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옛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해진 새 가지 곧 하나님이 심으실 백향목의 새 가지에 해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내가”라고 역설적

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는 유다의 다윗 왕통을 말합니다. 새 가지는 곧 “메시아”를 비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자손을 택하여 메시아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셨다는 말은 메시아의 미천한 출생을 비유합니다. 우뚝 솟은 산은 유다를 대표하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가 유다에 나실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합니다.

(23-24)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참된 피난처와 안전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한다는 말씀은 각국 민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언입니다(마 13:32). 들의 모든 나무, 즉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는 것을 보게 함으로 무너졌던 유다를 높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방 나라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예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평안과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을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는 우리에게도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함과 약속의 신실함 안에 있는 한 마침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안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해줄 수 없는 세상에 손을 뻗어 반역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생명을 이어받는 가지’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주어진 하루를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 계신 하늘 보좌에서 언약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할 때, 마침내 자라나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1-32

1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나 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5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6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7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0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듣거나 가증한 일을 행

하거나 13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  
 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  
 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  
 로 행하지 아니하고 15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  
 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  
 며 16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17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  
 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18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박하여 그 동  
 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9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  
 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나와 20 범죄하는 그 영  
 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  
 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  
 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  
 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 만일 의인이 돌  
 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  
 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  
 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25 그런데 너희는 이

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 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6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30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 이스라엘의 속담(1-2)

오늘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속담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속담의 내용이 나옵니다.

(1-2)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담이 당시에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오갔던 이유는 자신들이 바로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선량한 백성인데 조상들의 죄값을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남아있었고 결국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하나님의 답변(3-20)

(3) 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강경조로 누구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조상 탓으로 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책임한 핑계와 비양심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니다.

(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포함된 부록 인생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개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드시며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세 가지 예는 의인, 의인의 악한 아들, 악인의 의로운 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5-9)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빛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며 악한 길을 떠나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보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정 반대의 길을 걸어간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13)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가증히 여김을 받고 반드시 그 짓값을 치르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악한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걸어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삶과 무관하게 그를 살려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가장 손쉽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남 탓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연민을 통해 죄책감과 양심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속담을 돌려대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조상 탓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宿命론적인 비관주의에 빠져서 이미 조상들이 망쳐놓은 운명 앞에 우리는 망한 세대라

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상 탓만 하며 이미 망했다고 한숨 쉬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애들아 나는 너의 조상 때문에 너희를 벌하거나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려 애쓰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고 살릴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셨다고,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친척이 선교사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신앙의 그늘에 숨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앙의 뿌리가 전혀 없는 집안에서 핏박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 배경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조상들의 신앙유산에 취해 신앙의 금수저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며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신앙의 흙수저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신앙의 한 세대로 기억됩니다.

### 변화된 악인과 변질된 의인(21-29)

하나님께서서는 신앙 세대 간의 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신앙의 굴곡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변화된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21-23)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성경의 주제 중 하나가 ‘악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항의하였던 선지자 요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한 첫째 형의 모습이 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용서의 대상에 한계를 긋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들, 정죄 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 주셨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도 그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변질된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24-25)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혹에 빠져 모든 공의로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그가 행했던 모든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임을 경고 하십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마지막 구간까지 선두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길을 착각하여 코스를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사이 다른 선수들은 이미 완주를 마쳤습니다. 이 선수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에게 금메달을 줄 순 없습니다. 42km를 1등으로 달렸다 해도 마지막 195m를 두고 다른 길을 갔다면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기록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할지라도 변질되어 악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악함으로 그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먹고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삽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청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나의 삶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앙에는 저축이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예전에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의인이 행했던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현재의 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바른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변질된 나 자신을 돌이켜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30-32)

(30-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범죄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 순간에도 조상 탓을 하며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삶이 아닌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녀에게 매를 들며 기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버지가 훈육할 때 얼른 잘못했다 말하라고 하는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그늘 아래서 숨어 있는 자들, 예전 자신이 행했던 열심을 기억하며 과거의 영광에 매여 현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변질되어 있는지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반대로 조상들로부터 작은 신앙의 유산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이 박해의 원인이 되어 위축되어 살아가는 자들, 젊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허랑방탕하게 살다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뒤늦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며 과거에 묶여서 교만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악의 길을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넣어주셔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변화되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의 자리를 떠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현재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눈이 멀어 별거벗은 우리의 영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과거의 빈곤함으로 인해 좌절하여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어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를 돌려 오늘을 보길 원합니다. 과거와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게 하시고 42Km를 잘 달려왔다고 교만하지 않고 남은 195m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 나온 의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떠올려보며 악에서 돌이킨 자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3. 내 삶에서 만난 가장 악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해 봅시다.
4. 내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었는지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돌아보며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던 나의 잘못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 그때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19:1-14

1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나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었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5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7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0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12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뒳더니 13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4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

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 두 사자 비유 애가(1-9)

오늘 본문은 두 사자의 비유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비극 중에서도 비극입니다. 1-9절은 두 사자의 비유입니다.

#### (1)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고관들’은 ‘장관이나 장군과 같은 귀족들’을 의미하지 않고, ‘왕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다섯 왕(16-20대)은 16대 왕인 ‘요시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 요하난, 여호야김(엘리야김), 여호아하스(살룸),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하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네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6대 왕인 요시야를 이어서 그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살룸)가 17대 왕위에 올랐고, 다음은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9대 왕으로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막내아들인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자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살

름)는 첫째와 둘째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자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엘리아김)은 11년간 다스렸지만, 그의 통치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것이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요시야의 손자)이자,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여고냐, 고니야)도 불과 3개월간 통치하면서도,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넷째(막내) 아들이자,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했지만, 그는 자식이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낫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비극적인 타이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에서 1-4절은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이고, 5-9절은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나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암사자라고 자문자답합니다. 어머니가 사자이면, 아들도 당연히 사자입니다. 흔히 사자를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듯이, 여호아하스 왕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에 비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하면 예수님을 피조물, 그것도 동물에 비유했다고 불경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사자’인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인 유다가 사자 새끼 중 하나를 젊은 사자\_건장한 사자로 키웠다고 합니다. 사자가 다 자라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할 수 있지만 어릴 때는 다른 동물들처럼 연약합니다. 어미 사자가 사냥하러 갈 때 걱정거리 중 하나는 아주 어린 사자들입니다. 좀 크면 데리고 다니지만, 그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기고 갑니다. 그러다가 하이에나나 들개 떼를 만나면, 아주 어린 사자들은 물려 죽습니다. 하이에나나 들개들이 미래에 자신들이 당할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서 물어뜯듯이, 사람을 잔혹하게 물어뜯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젊은 사자인 여호아하스를 이방(애굽)이 듣고, 함정에 빠뜨려 잡고는 갈고리로 꿰어 애굽으로 끌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갈고리로 꿰다’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서 아가미에 고리를 꿰어 놓거나, 소나 돼지를 잡아서 그 커다란 고깃덩이를 보관소 천장에 걸어놓은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비참하게 애굽으로 끌려간다고 하십니다.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8년 전부터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다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보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정을 베푸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백성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5-7)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것은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통치했습니다. 혹시라도 해서 여호아하스를 기다렸지만, ‘혹시나?’는 언제나 ‘역시나!’였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여호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자 새끼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크고 나니, 여호아하스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똑같이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아니하고, 먹잇감으로 여겨 잔혹하게 물어뜯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8-9)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게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야긴도 여호아하스처럼 똑같이 함정에 빠지고, 갈고리에 꿰인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 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애가(10-14)

1-9절이 두 사자에 관한 비유였다면, 10-14절은 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애가입니다.

(10) 네 피의 어머니는 물 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유다를 ‘물 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풍부하니까 열매가 많고, 가지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물가에서 저절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발효하여 부풀릴 수 있는 것은 밀가루 자체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누룩을 통해서입니다. 누룩이 없다면 밀가루 반죽은 시간이 지나도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그 성질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13)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한때, 가지들이 뺏어 나갈 만큼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지 하나가 굵고 다른 큰 가지  
들보다 더 높이 솟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교만함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강  
건하게 보이는 포도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지고 나니까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동풍’은 북아프리카  
에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사막 열풍\_시로코(sirocco)입니다. 이  
동풍은 요나 선지자에게 그들을 제공했던 박넝쿨을 하룻밤에 말  
라버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동풍이 불어오니 열매가 말랐다  
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6:25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썼듯이, 동  
쪽에서 엄청나게 몰려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의 종  
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유다는 물가에 심겨  
진 포도나무와 같았지만, 이제는 가물(가뭄)이 들어 바짝 말라  
버린 땅에 심겨진 것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 가지(시드

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4)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큰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그 가지와 열매를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규(통치권을 상징)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관(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도 애가이고, 끝도 애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슬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애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비극적인 애가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땅을 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채우지 않았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해 주시고, 그들이 파지도

얇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얇은 포도밭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멸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반복하여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처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자신이 작은 존재인 것을 거부하고 큰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과 유다를 제대로 꾸려갈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변질되고 나니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변화된 삶, 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가(雅歌)\_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 이야기는 참 슬픈 노래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불과 각각 3개월과 11년씩 통치했을지라도 영원의 시각에서는 한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웃 나라의 힘을 더 의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생각하여 무자비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인생을 '애가'로 만들어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애가로 만들고, 미래도 애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강한 가지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나가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변화시켜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가'가 아니라 '아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아버지에게서 선하고 바른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악을 자행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선하고 바른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승되게 하고 있습니까?
2. 유다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입은 은총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 마지막을 '애가'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지고 있습니까?
4. 당신의 삶과 믿음을 '애가'가 아니라 '아가'로 만들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이는 내 이름 위함이라

에스겔 20:1-32

1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5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6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쫓과 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7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

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  
 였음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  
 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  
 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  
 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15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  
 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쫓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  
 리라 한 것은 16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17 그러나 내  
 가 그들을 야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18 내  
 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라 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  
 례를 지켜 행하고 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21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  
 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  
 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2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  
 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으로라 23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  
 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에 헤치리라 하였나니 24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  
 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  
 상들을 사모함이며 25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  
 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6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27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  
 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였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  
 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  
 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거  
 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30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  
 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31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  
 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2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  
 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 장로들이 방문하다(1-4)

장로들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에게 나아왔습니다. “일곱째 해”는 여호야킨이 포로로 붙잡혀 온 날을 기점으로 7년 후를 가리키며, 주전 591년 8월입니다. 앞서 8-11장에 나온 성전 환상을 본 이후로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는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바벨론을 등지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미루어보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찾아온 것 같습니다.

(3)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찾아온 장로들을 반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반기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들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8:11; 14:2). 우상을 섬기면서도 주의 백성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온 이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자기에게 맞닿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그중 한 마음만 자기를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흔히 결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하기로 하나님과 만인 앞에 서약하는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배우자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함에도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을 돌려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오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장로들을 매몰차게 대한다고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이집트 시절의 하나님(5-9)

이스라엘의 배신은 그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애굽, 광야, 가나안 등 위치와 형편에 상관없이 끊임없

이 배교해온 역사를 지적하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계속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6절)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예배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노릇 하면서도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데, 오늘 이곳에서 그들이 지속해서 배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비롯한 일가 70명이 정착할 때만 해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겠지만, 대를 이어 400년을 지내며 점차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시며, 우상을 버릴 것을 언약 백성의 조건으로 내거셨습니다.

(7-8)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 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미션은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떠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려고 하셨으나 결국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9)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비슷한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14절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22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야 하나님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만하지 못한 신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

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의 말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열심 덕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스라엘에 먼저 다가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양태는 다양하더라도, 늘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미한 존재라 하더라도 삼킨 바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광야/가나안에서의 하나님(10-29)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왔는지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주셨다면, 광야에서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11-12)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였고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 갈증을 해소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21a)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대표적인 율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을 넘어서 이틀, 사흘을 쉬는 것이 제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을 주변국과 구별시켜주는 계명이었습니다. 농사의 흐름과 주인의 계획에 따라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던 종의 신분일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와 달력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었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임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사랑과 자비로 용납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배교는 지속되었습니다.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무분별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28)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였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의 우상숭배가 출애굽 1세대가 저지른 죄라면,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숭배는 출애굽 2세대들 이후의 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40년간이나 연습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도 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작지만 반죽을 변화시킬 능력을 지닌 누룩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나 하였노라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아마’입니다. 하나님의 29절 말씀은 일종의 언어유희인데, 산당 바아마는 가다/오다의 뜻을 지닌 ‘바아’와 무엇을 뜻하는 의문사 ‘마’를 합한 소리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러 가느냐?’의 뜻이 됩니다. 곧 하나님은 산당에 가서 열심히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대체 거기에서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 와서도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마음에 품은 열심만 가지고는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난 연후에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출발과 근본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서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품고, 용서하고, 다독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삶은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개혁하는 삶입니다. 목적 없이 산당으로 다니며 욕망만 투사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인생을 모색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내 인생 속에 함께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되돌아보고, 오늘 걸어갈 길을 가늠해보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며,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 전체에서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삼킨 바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머문 장소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어디인지 찾아보세요(5, 10, 28).
2.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종교생활을 표현한 부분을 다시 찾아 읽어보세요(7-8).
3. 하나님께서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9)?
4. 지금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상숭배 하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32)?

## 능한 손과 편 팔로

에스겔 20:33-49

33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흠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5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40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1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흠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44 이스라  
 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4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6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  
 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48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  
 다 하라 하시기로 49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 20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20장 전반부는 이스  
 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인 20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  
 스리는지, 그리고 예배 회복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  
 니다.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의 발단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  
 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에스겔 20장은 이러한 과정과는 달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미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기에, 수개월 내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철회하셨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이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요청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묻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겔 20:2).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무슨 마음을 품고 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쭙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듣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겨 이전 결론을 뒤집고 더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도록 요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

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자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과거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심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 모아내고, 인도하여(33-39)

(3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능한 손과 편 팔로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능한 손과 편 팔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34-35)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남유다가 앞으로 몇 년 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1, 2차 포로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  
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은 살길을 찾기 위하  
여 바벨론 이외에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과 번영을 위하  
여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  
를 쏟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분노를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실만  
한 일을 그들이 했거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이국땅에 흩어져 살아간다면, 왜 나라가 망  
했으며 왜 이국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성찰함으로 하나님  
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  
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성  
찰 없이 현실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서 35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얼  
굴을 맞대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36절 말씀처럼 과거 조상  
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심판하시겠  
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이스라  
엘이 본향으로 돌아올 때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가증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듯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숭배했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우상을 섬겼던 가증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국땅에서의 포로 생활로 짓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귀환 길에 오른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잘못된 일로 고생을 겪었다고 합시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좋은 일만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 형무소에서 형을 다 마쳤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형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흩어져 살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분류해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37-38)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처럼 양들의 수를 세고, 양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양과 염소 비유처럼 새로운 언약에 거할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분류하십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줄로 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전히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국땅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이스라엘 본향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말씀이 42절과 4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며(40-44)

(40-4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고생하며 살도록 하신 후, 적절한 때가 되어 다시 모으시고,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며 통치자임을 알리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세상에 알리시겠다고 합니다.

(43-44)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행한 모든 악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행동한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과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한 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 어리석은 행

동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결단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행위대로 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다 별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행위대로 별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 그들이 회개하면 과거 행위대로 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스겔 20장 45-49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남쪽의 숲(45-49)

(45-46)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45-49절은 남유다를 남쪽의 숲으로 비유하여 불의 심판을 받

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4절까지 행위대로만 갚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21장의 칼의 비유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45-49절이 2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소리를 남쪽으로 향해 내고, 남쪽의 숲을 치겠다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걱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침입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푸른 나무이든 마른 나무이든 남쪽의 모든 나무들이 맹렬한 불에 의해 사라질 것 역시 혹독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48절을 보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혈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일으키셨음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혈기 있는 자들이란 육체를 가진 일반인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리시는 심판은 보통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9절의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이든 직설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

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받아야 합니다.

20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받았더라면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이 기억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히 4:12)’ 하십니다. 오늘 하루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전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되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꺾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의 표적다운 모습으로 이 하루를 가꾸어 나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 구원역사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징계하심으로 회개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언약의 매는 줄,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 팔이 분노의 손과 팔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손과 팔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고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 팔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3.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언약의 매는 줄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리라

에스겔 21:1-32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3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7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10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यो 빛남은 번개 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이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엮신여기는도다 11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 그들과 내 백

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13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거든 어찌할까 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15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16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17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0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1 바벨론 왕이 갈갯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22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23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24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25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2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8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29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너를 중상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최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30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1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32 네가 불에 썩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 유다를 친 하나님의 칼 비유(1-7)

에스겔 3-24장은 바벨론 제국을 통한 유다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이웃 나라 암몬에 내릴 심판에 대해 증거합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은 25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칼이 유다를 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과 성소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땅에게까지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성막)

에는 뜰과 성소가 있고, 성소(안쪽 성소를 지성소라고 함)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14대 므낫세 왕 때에 성전에 있던 제단들을 없애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실 이유가 없으셔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오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힘은 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힘과 건강성은 수도의 힘과 건강성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새겨들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하다’라는 단어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격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방땅에서도 말입니다.

(4-5)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칼을 빼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은 무조건 지켜 주실 것이라는 오해된 믿음으로 인함이었습시다.

그러나 바른 부모일수록, 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수록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를 무조건 품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로 세우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심은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초리는 한 대 맞으면 종아리가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집에서 꺼낸 칼을 다시 꽃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회초리에 맞아 종아리가 터지고, 심지어 다리뼈가 부러져도 매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7)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사람처럼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유다가 직면해야 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혹독할 것 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더 무겁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혹독한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5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날카로움과 빛남이 부각되는 칼의 비유(8-17)

8-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고도 빛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한 것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칼을 휘두르므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12-14)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거든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시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고관들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 전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네 넓적다리(가슴 또는 엉덩이라 할 수도 있음)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좋은 말로 격려를 해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어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의 징계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표현하는 것이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막 휘두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본 만화의 한 인물이 뛰어난 검객인데, 칼을 1초에 3번을 휘두르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1초에 3명씩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것은 유다를 침략해 온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그림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17)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6절은 칼의 움직임은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 심판의  
긴박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동사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입니다. 칼이 춤  
을 추듯이 온 사방을 다니며, 살육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  
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노  
가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마음은 찢어지실 것입니다.

### 바벨론 왕의 칼(18-27)

18-27절은 원정길에 나선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19-20)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왕이 오는 길을  
그려서, 두 길이 나뉘는 곳에 칼로 지시표(안내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바벨론(북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길은 하나입니

다. 이스라엘에 들어서게 되면, 북쪽에서 볼 때 지중해 쪽은 예루살렘이고, 요단강 동쪽은 암몬의 수도 랍바입니다. 그 분기점에서 바벨론의 왕이 어느 쪽을 먼저 칠지를 점을 친다고 합니다.

(21-22) 바벨론 왕이 갈랏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바벨론의 왕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방법으로 점을 치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살에다가 두 도시의 이름을 통에다 넣고 흔들어서 뽑힌 도시를 먼저 치는 방법과 둘째는, 우상에게 묻는다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에게 묻는 것이고 셋째는, 제물로 드린 짐승의 간을 살피는 것입니다. 간의 생김새로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고대에 간은 생명이 머무는 자리로 여감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간’을 영어로 ‘liver(리버)’라고 합니다. 그렇게 점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26-2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것은 바벨론 군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왕(시드기야)의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긴다고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리뜨리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폐허\_전복(顛覆), 폐허\_전복, 폐허\_전복’입니다. 히브리말은 두 번 반복해서 강조와 최상급의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3번을 반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특별한 최상급을 뜻합니다. 그 의미가 이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암몬을 치는 칼(28-32)

28-32절은 암몬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살핀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점괘로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몬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박장대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 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칼이 뽑히도다’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벨론의 가공할 만한 공격이 칼을 칼집에 넣을 시간도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암몬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칼이 번개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설새 없이 휘둘러지는 칼날이 해에 비치는 모습인데, 엄청난 살육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운명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2) 네가 불에 썩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불의 썩(떨감)처럼 될 것이고, 둘째는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것은 암몬 사람들이 대량 살육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암몬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암몬은 B.C. 2세기 이후부터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할 무렵부터 노랑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를 이순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성경으로 ‘칼’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칼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게 하시며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악, 하나님-!’하고 비명을 지르듯 기도드리면 허리가 끊어질 듯합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과거에 산 기도를 간다고 할 때 ‘소나무 뽑으러 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산등성이에서 나무를 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제국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탄식할 상황으로 가지 않고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의 노래는 얼마나 엄격하고, 정확한지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려야 할 하나님의 노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우상의 노래, 세속적 가치관의 노래, 자기 욕망 성취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칼의 노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2500년 전의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이 찌르는 현장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통하여 오늘 하루만큼,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칼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칼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바벨론의 왕은 화살이나, 드라빔, 짐승의 간 등을 통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유다)과 랍바(암몬) 중에 먼저 칠 도시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펼쳐진 것을 경험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하나님의 칼이 임하기 전에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